ISSN 1228-291X

교육개발

Winter_2010
Vol.37, No.4

특별기획 1
2011년 교육 대전망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업무 추진방향
2011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요 정책기조 및 추진방향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 주요 연구 및 사업 추진방향

특별기획 2
미리 보는 2011년 EBS
– 2011년 EBS 경영지표와 주요 프로그램, 수능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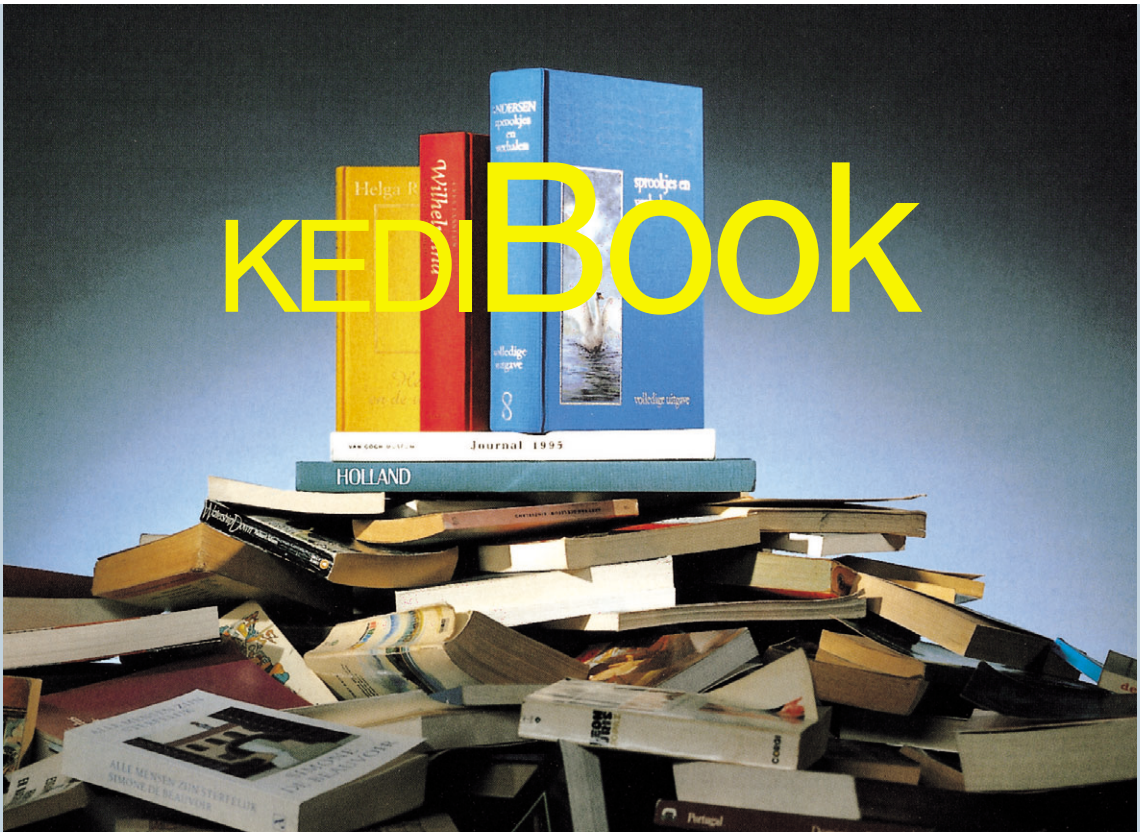
정책과 현장
단위학교 특교사업 예산집행의 효용성 및 개선방안

이슈와 전망
학교장의 리더십이 선호 · 기피학교 가른다.

초대석
자기주도학습 지침서
–「내 공부의 네비게이션! 자기주도학습」 발간 취지 및 내용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도서회원’ 이라면
당신은 이미 신지식인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은 지난 38년 동안
국가수준의 교육목적, 방향, 비전, 정책, 전략을 연구해 온
교육정책전문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
연구성과의 폭 넓은 활용과 보급을 위하여
’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를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께서는 가장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 **회원 자격 및 특전**
(1)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집니다.
(2) 본원에서 계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4회)과
『한국교육』(연4회)을 보내드립니다.
(3) 기관회원: 기본연구보고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 **연 회 비** : 1계좌당 개인회원 120,000원
기관회원 200,000원

▣ **입금계좌** : 011916-0006202 (우체국)
070-01-0379-171 (국민은행)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 **문 의 처** : Tel : 02) 3460-0407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육개발
Winter
2010 Vol.37 No.4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 **발행인** | 김태완
• **편집장** | 문성룡
• **출판심의위원** | 구자억(위원장), 김경애, 김미란, 문성룡, 박균열, 박종효, 안성훈, 윤종혁, 정미경, 최상덕, 현 주
• **편집실** | 정경아, 정미영, 이범진
• **디자인 · 인쇄** |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 **홈페이지** | edu.kedi.re.kr
• **발행** | 2010년 12월 29일
• **계간 등록번호** | 서초바 00022
• **등록변경** | 2009년 5월 27일
• **값** | 6,500원
• **구독문의** | 02-3460-0472 keditor@kedi.re.kr

CONTENTS

04 **파워인터뷰**
진동섭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듣는다

16 **특별기획 1 : 2011년 교육 대전망**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업무 추진방향
김차동 |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

2011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요 정책기조 및 추진방향
나근형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 인천광역시교육감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 주요 연구 및 사업 추진방향
최상덕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

32 **특별기획 2 : 미리 보는 2011년 EBS :**
– 2011년 EBS 경영지표와 주요 프로그램, 수능 연계

39 **세계의 교육**
북유럽 국가의 교육 ODA 발전과정과 현황
이태주 | 한성대학교 교수, ODA WATCH 대표

영국과 호주의 다문화교육
곽한영 | 부산대학교 교수

핀란드는 어떻게 우수 교원을 양성하나
김기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 교원양성기관평가운영팀장

58 **초대석**
자기주도학습 지침서 –「내 공부의 내비게이션 자기주도학습」 발간 취지 및 내용
박효정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연구실장

62 **이슈와 전망**
학교장의 리더십이 선호 · 기피학교 가른다
강연홍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장학관

67 **정책과 현장**
단위학교 특교사업 예산집행의 효용성 및 개선방안
김지하 |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센터 연구위원

74 **현장르포**
학교볼런티어(VIPS)를 통한 학습공동체 만들기 – 청계초등학교
박경숙 | 청계초등학교 교사

365 연중 돌봄교육활동으로 행복한 농촌학교 만들기 – 신반중학교
노은실 | 신반중학교 교사

꿈을 찾고, 꿈을 이루는 행복한 학교 – 안의고등학교
박선미 | 안의고등학교 교사

89 **해외교육 동향**

96 **KEDI 동정**

Power Interview

진동섭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대담 _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INterview

“집권 후반기에는 교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풍토가 제도화되도록 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 둘 것”

“교육의 성과에 따라 대학의 평판이 정해지도록 하는 국제수준의 평가체제도 구축할 계획”

진동섭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듣는다.

“집권 후반기 정부 교육정책의 기조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 학교 교원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풍토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을 둘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력을 향상시킨 우수 학교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좋은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교와 교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계획입니다.”

.진동섭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이명박정부 집권 후반기 교육정책의 추진방향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진동섭 수석은 또 “정부는 지난 3년간 일련의 대학자율화정책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해왔다” 면서 “후반기에는 경쟁력이 없는 사립대학들의 퇴출경로를 법제화하고, 국립대학 법인화의 단계적 추진으로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대학이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진 수석은 이와 함께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평가의 개선이 중요하다” 고 말하고, “대학이 스스로 발전의 노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대학 자체평가를 활성화하고, 입학자원의 우수성이 아닌 실제 교육성과에 따라 대학의 평판이 정해지도록 하는 국제수준의 평가체제를 구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지난 12월 9일(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진동섭 수석을 만나 이명박정부 집권 후반기 교육정책의 기조와 추진방향, 제반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복안 및 대안, 그동안의 소회와 KEDI에 대한 당부 등을 들어봤다.

김태완 원장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을 지내시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일하고 계신 지 1년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 간의 소회가 있으실 텐데요.

진동섭 수석 : 제가 이 곳에 왔을 때 우리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당시 온 국민과 함께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한편, 위기이후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을 다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후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구현하게 되었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나아가 G20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을 이끄는 나라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이 곳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연아 선수의 동계올림픽 금메달 획득, 17세 이하 여자청소년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우승 등 우리 미래세대가 세계무대를 제패한 가슴 벅찬 순간도 경험했습니다.

숨 가쁘게 지나간 1년 3개월여 동안 무엇보다 제가 맡고 있는 교육, 과학,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에서 대통령님의 철학과 생각이 정부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당초 생각했던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소상히 살피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비교적 자유롭게 교육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왔던 대학교수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장으로 있을 때와는 달리 국민들의 생활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책임을 수반하는 일을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막중한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완 원장 :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기 계획하였던 학교 자율화 · 다양화, 공교육만족도 제고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일련의 제도개선을 지난 3년간 어느 정도 그 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중간점검이랄까 스스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진동섭 수석 : 아시다시피 지난 2년간 우리 교육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성과라면 아무래도 기계적 평준화와 획일화의 틀에 매몰되어 있던 교육의 패러다임이 자율과 다양성을 기본으로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3년간 마이스터고, 기숙형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과학 · 예체능 교과중점학교 등 학교유형을 보다 다양화하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학교단위에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자율과 다양성의 확대와 더불어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부

■ 진동섭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집권 후반기 교육정책의 방향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 학교 교원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풍토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을 둘 계획입니다. ”

터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지원함과 동시에 올해부터는 학교가 가르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2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처음 시행하여 학교와 선생님들의 더 잘 가르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고 및 전원학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 학생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에도 세심한 배려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든든학자금 도입 등으로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많은 개혁정책들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현장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권 후반기에는 정책의 속도보다는 안정적인 현장 착근과 우수사례 창출 및 확산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김태완 원장 : 집권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을 더 많이 찾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정책과 제도를 다듬고 착근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집권 후반기의 교육정책의 기조는 무엇입니까?

진동섭 수석 : 지난 3년간의 다양한 교육개혁사업의 추진으로 많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용도와 학부모들의 체감도는 기대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그간 3단계에 걸친 학교 자율화 조치를 통해 법령과 지침을 정비해 왔으나 단위학교 차원의 자율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는 대폭 이양했으나 시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의 이양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학력향상 중점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다양한 국가시책사업을 통해 학교현장에 긍정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만, 개별적 사업목표를 지닌 국가시책사업(33개)이 복잡 · 다기(多岐)하게 추진되어 사업의 비효율성 문제가 야기되고, 하향식으로 운영되어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도 정부의 많은 노력에 상응한 현장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

■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집권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을 더 많이 찾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정책과 제도를 다듬고 착근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집권 후반기의 교육정책의 기조는 무엇입니까? ”

Power Interview

"요즘 공정한 사회, 공정한 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요. 그리고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무엇인가요?"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써 이른바 인생 3모작 시대를 대비한 실질적인 평생 직업교육체제를 조성하는 것이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현하는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대학에 진학하여 청년실업자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라서 집권 후반기 교육정책의 방향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 학교 교원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풍토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을 둘 계획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교육과학기술부와 KBS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에 참석하여 그곳에서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서벽지의 작은 학교임에도 대도시의 큰 학교 못지않은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선생님들과 학생이 합심하여 운영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는 사례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집권 후반기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조는 바로 우수 학교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좋은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교와 교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른은 꿈도 꾸지 못할 세계 제패라는 쾌거를 이룬 17세 이하 여자청소년 축구대표팀 선수 중의 한 사람이 전후반 90분 운동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선수는 "우리가 운동하는 것을 보는 관중들도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직접 경기장에서 뛰는 저희들은 얼마나 즐겁겠어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젊은 세대가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교육개혁의 방향 또한 우리 미래세대가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맞게 즐겁게 재능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어른들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 요즘 공정한 사회, 공정한 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요. 그리고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무엇인가요?

진동섭 수석 : 공정한 사회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실패한 사람이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모두 기초역량을 갖추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학교가 책임

지고 보장하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지원체제를 내실화하고 가능한 이른 시기에서부터 학습결손이 예방될 수 있도록 유아단계부터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북한이탈 청소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마련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정한 교육' 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써 이른바 인생 3모작 시대를 대비한 실질적인 평생 직업교육체제를 조성하는 것이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현하는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대학에 진학하여 청년실업자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무분별한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통해 영 마이스터(Young Meister)로서 인생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24개의 마이스터고를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2011년부터는 특성화고의 모든 학생들에게 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재학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직업교육기관의 개혁을 통해 졸업 후 대학진학이 유일한 선택이 되어버린 왜곡된 교육풍토를 개선하고 직업교육을 통해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완 원장 :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교육 또한 국격에 맞게 더욱 성숙되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데요. 국격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교육분야의 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진동섭 수석 :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는 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원한 결과 각 국의 정상들도 모두 감탄할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강제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승용차 2부제 운동에 적극 동참하였고, 전국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젊은 자원봉사단원들 또한 자랑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회의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돕는 모습을 우리 모두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글로벌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하여 G20 서울정상회의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우리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높아진 국가 위상에 따라 대한민국 발전의 바탕이 된 교육발전의 경험전수를 요청하는 개발도상

INterview

국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에서부터 수학 · 과학 교육과정 및 교원연수, 이러닝, 직업훈련, 대학설립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별 요구 또한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도국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들과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우리의 준비여건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프랑스 · 독일 등의 10분의 1에 불과한 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 규모의 영세성, 하드웨어 중심의 일회성 지원, 기관별 분산지원 등의 문제로 인해 수원국(受援國)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성공경험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초중등교육+직업교육+과학기술 패키지 지원방식' 으로 개선하고, 시설 · 장비 등 하드웨어 중심 지원에서 정책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교사파견 등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무엇보다 비효율적인 사업지원체제를 대폭 정비해야 할 것 입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 학생들을 장차 글로벌 시민으로 육성하는데 필수적인 준법의식, 기초질서 등 기본교육과 함께 다민족 · 다문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대비하고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타(他) 민족 · 문화에 대한 닫힌 마음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G20 준비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시민실천운동 등을 통해 지구촌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은 2년 마다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실시한 조사내용 가운데 '앞으로 더 중시해야 할 교육' 으로 창의성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 계획하고 계시거나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진동섭 수석 : 아시다시피 창의성과 인성 함양은 학교 교육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 또한 학생 모두가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교 교육은 창의교육과는 너무 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G20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한 대한민국이 G20 국가 중 아직 노벨과학상을 받지 못한 6개국 중 하나인 것도 초중등학교에서 창의교육이

"정부 출범 후 대학자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양적 성과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고등교육분야에서 집권 후반기에 어떤 과제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A. Toffler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우리 학생들의 잠재력이 계발되는데 방해가 되는 바로 이러한 학교교육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데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습자의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많이 집어넣는 교육' 에 치중해 온 주입식 교육과 과도한 학습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을 개편하였는데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축소(중고 현행 13과목 내외→8과목 이내)하여 '하고 싶은 공부를 깊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확대(고교 주당 2→4시간)하여 동아리 · 봉사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활동들이 가능하도록 개편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객관식 위주의 전 근대적 평가관행을 개선, 문제해결력 등을 키워주는 서술형 평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1, 2점차를 중시하는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학생선발에서 잠재력, 소질,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 또한 창의교육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제까지 정부의 노력이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학교현장에서 창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복잡 · 다기하게 추진 중인 학교 재정지원사업을 대폭 정비하여 학교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신 자발적으로 창의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업전문성이 높은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 확대 배치하여 단위학교의 수요에 맞는 학교컨설팅 등을 활성화하는 것 또한 창의교육의 확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태완 원장 : 정부 출범 후 대학자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양적 성과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고등교육분야에서 집권 후반기에 어떤 과제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사립대학들의 퇴출 경로를 법제화하고, 국립대학 법인화의 단계적 추진으로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세계 일류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이 스스로 발전의 노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대학 자체평가를 활성화하고, 입학자원의 우수성이 아닌 실제 교육성과에 따라 대학의 평판이 정해지도록 하는 국제수준의 평가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진동섭 수석 :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고등교육은 양적인 면에서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교육지표에 의하면 25~34세 연령대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58%로써 OECD 국가 중 1위이며, 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도 세계 1위(79.0%)로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도 무려 10% 이상 높습니다.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수도 금년에 1만 명을 넘어섰고, 인구 1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2.16명으로 미국 1.56명, 일본 1.20명, 프랑스 1.73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과는 달리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은 좀처럼 호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영국 대학평가기관인 QS(Quacuarelli Symonds)가 금년 9월에 발표한 세계 주요 대학의 경쟁력 순위에 의하면 국내 대학 중 100위 안에 든 대학은 단지 2개교(서울대 50위, KAIST 79위), 200위 안에 든 대학도 5개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일련의 대학자율화정책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사업(11개교)을 통해 대학이 '선발경쟁' 에서 벗어나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경쟁' 에 나서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권 후반기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것이며 보다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대학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2016학년도부터는 고교 졸업자 수가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지방 사립대학들이 많이 발생하고, 대학간, 학과간 통폐합이 급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쟁력이 없는 사립대학들의 퇴출경로를 법제화하고, 국립대학 법인화의 단계적 추진으로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세계 일류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평가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대학이 스스로 발전의 노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대학 자체평가를 활성화하고, 입학자원의 우수성이 아닌 실제 교육성과에 따라 대학의 평판이 정해지도록 하는 국제수준의 평가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인적자원임에도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전업 대학 시간강사

Power Interview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보다 더 내실화 한다면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입학사정관제는 여건을 갖춘 대학, 필요성을 느끼는 대학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대학의 대외적인 공정성 및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진로 · 진학상담교사의 배치 등을 통해 일선 고교에서 입학사정관제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는 4만여 명에 달하며 이들은 전국 대학에서 교양과목의 51%, 전공과목의 36%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에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빈곤계층으로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료 단가를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들에게도 일정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여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보다 더 내실화 한다면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동섭 수석 : 미래 지식기반사회에는 창의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산업화시대의 기존의 인재상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창의성과 배려심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도 바뀌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방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학생선발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에만 치우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며, 남을 배려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러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을 대학들이 각각의 건학이념과 인재상에 맞추어 선발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대입 자율화와 공교육 정상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와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함께 노력해 금년도에 118개 대학에서 3만 6천여명의 학생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도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입학사정관의 양성을 위해 선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대교협 또한 대학의 요청에 따라 입시전형방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과 학부모들은 추진 속도와 운영에 대한 우려감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정부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여건을 갖춘 대학, 필요성을 느끼는 대학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대학의 대외적인 공정성 및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진로 · 진학상담교사의 배치 등을 통해 일선 고교에서 입학사정관제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 “평소, 일선 단위학교가 활발하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나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과거와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은 단순히 몇 가지의 제도개선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앙정부, 시 · 도교육청, 시 · 군 · 구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교사가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촘촘한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학교는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하여 수업을 개선하고 학교문화를 즐겁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Power Interview

김태완 원장 : 평소, 일선 단위학교가 활발하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나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과거와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진동섭 수석 : 정부의 교육개혁은 이념이나 말보다는 실천을 중시하는 중도실용 개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제도중심의 교육개혁, 교원을 개혁대상으로만 보는 과거의 개혁방식을 지양하고 학교현장의 경험을 존중하는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 하에서 지난 2년간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29개 지침을 폐지하고(08.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대폭 이양 · 위임하였으며(08.6), 교원인사 · 교육과정운영 등과 관련한 단위학교의 자율을 확대하는(09.6) 등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교과부→시도교육청→학교’ 로의 기존 하향식 행정체제의 틀을 벗어나 단위학교가 실질적인 자율 · 책임 경영체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일부터는 시 · 군 · 구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 으로 전환하여 학교에 대한 관리 · 감독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교육수요자와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의 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자율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아직까지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이 시 · 도교육청으로는 이양되었지만, 정작 시 · 도교육청 권한의 단위학교로의 이양 속도가 매우 더딘 일종의 병목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단위학교가 늘어난 권한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제반 지원기능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못한 것도 한 이유라고 봅니다.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은 단순히 몇 가지의 제도개선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앙정부, 시 · 도교육청, 시 · 군 · 구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교사가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촘촘한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학교는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하여 수업을 개선하고 학교문화를 즐겁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교육개혁의 방향이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실 안에서의 개혁에 있는 만큼 학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학교 컨설팅의 도입 · 확산, 교무 · 학사 중심으로의 학교업무체계 개편 등 학교와 교사의 교육력을 극대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김태완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역임하신 분으로써, 밖에서 바라본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KEDI에 대해 가지고 계신 바람과 기대, 당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동섭 수석 : 한국교육개발원이 1972년에 태어났으니 이제 불혹의 나이가 다 되어 가는군요. 지난 38년간 KEDI는 한국의 교육발전은 물론 세계교육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싱크탱크로 발전해 해왔습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기까지 교육이 미친 기여가 큰 것처럼, 한국교육의 발전 과정에서 KEDI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분야별로 특화된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해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등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많이 설립 ·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교육정책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최고 연구기관으로서 KEDI가 민간연구소나 대학 등과는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차별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것이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의 KEDI에 대한 바람이자 기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비전을 설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현장을 위한 아이디어 뱅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연구와 개발의 지향점을 일선 교육현장의 개선에 맞추면 좋겠습니다.

수능성적 데이터가 공개되고 올해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도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 공시됨에 따라 KEDI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주요 교육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평가기능이 보다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평준화정책, 지방교육자치제도, 학교 자율화 등은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지만 성과에 대한 객관적 · 지속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해 정치적 이념 대립의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투자하는 공공 재원의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평가 체제 또한 구축되어 있지 못합니다. KEDI가 누적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타당성 높은 평가를 통해 어떠한 정책과 제도가 성과를 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진동섭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은…

인천 제물포고등학교('7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76) 및 동 대학원('81)을 각각 졸업하였다. 서울 오류여자중학교 교사('77-'78),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원('78-82)을 거쳐 미국 시카고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을 전공, 철학박사학위('89)를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지방교육분과 위원장('02-'03),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03-'04),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02-'04),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04-'05),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 원장('06-'08), 한국교육개발원 원장('08-'09) 등을 역임하였다.

20여년 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재직해온 대표적인 학자출신으로, 현장을 중시하는 개혁 마인드와 함께 합리적인 일처리와 풍부한 아이디어로 교육계 안팎의 신망이 높다. 현재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서 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의 이해》, 《교직과 교사》, 《한국교육조직 탐구》, 《새로운 선택적 장학》, 《학교컨설팅-교육개혁의 새로운 접근방법》,《학교경영컨설팅과 수업컨설팅》외 다수가 있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업무 추진방향

– 창의인재 양성과 선진과학기술체제 구축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 준비

글_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2월 17일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 이라는 2011년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간의 주요 개혁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2011년 6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림 1] 2011년 교육과학기술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Ⅰ.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 · 인성교육의 확산

6대 중점추진과제 중 첫 번째 과제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 · 인성교육의 확산』이다. 창의 ·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먼저 학생들에게 즐거운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학교수업을 개선한다.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수가 대폭 축소(10~13개 과목 → 8개 과목)되고, 집중이수제와 블록타임

제 적용으로 교과 특성을 살린 실험, 탐구, 토론학습 등 창의적 수업이 더 확대된다. 동시에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교실제 사업을 현재의 806개교에서 2011년에는 1,000개교까지 확대한다. 창의 · 인성교육에 맞게 학교 내신평가방식도 개선한다.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수행평가를 내실화함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상대 9등급제도 개선한다. 한편, 2011년 말까지 주입식 위주의 학습량을 대폭 경감하고 학년 · 교과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교육과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창의적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다각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교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수업모델을 개발하여, 현장수업에 적용하도록 교과연구회 지원을 2010년 400개에서 2011년 1,000개로 대폭 확대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제('11년 500명)를, 능력향상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또, 2011년부터 일선학교에 본격 적용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 오케스트라 등 예술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스포츠클럽도 활성화하는 한편, 대학 · 기업 · 출연(연) 등의 시설 · 인력 · 장비 등을 교사 · 학생의 체험활동에 활용하는 교육기부운동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

창의적인 즐거운 수업 확산과 함께 바른 인성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된다. 우선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칙제정과정 참여, 학칙준수 문화 확산,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 · 준비하는 학교행사(졸업식, 입학식, 축제 기획 등) 확대, 동아리활동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나아가, 우선배려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장애학생 의무교육

창의 ·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먼저 학생들에게 즐거운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학교수업을 개선한다.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수가 대폭 축소(10~13개 과목 → 8개 과목)되고, 집중이수제와 블록타임제 적용으로 교과 특성을 살린 실험, 탐구, 토론학습 등 창의적 수업이 더 확대된다.

시작 나이가 기존의 만 5세에서 만 4세(일반학생 만 6세)로 낮아지고, 다문화가정 우수학생 100명을 선정하여 우리나라와 부모출신국 간 핵심교류 인재로 육성하는 '(가칭)글로벌 브릿지 사업' 이 신규로 추진된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 지원도 대폭 강화하여 우울, 불안, 자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폭력 등 학생정신건강 조기진단 실시학교를 2010년 1,126개교에서 2011년에는 4,300개교로, '12년에는 모든 초 · 중 · 고로 확대해 나간다. 정신건강 진단에서 선별된 위기학생들에게는 심리상담 및 전문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들의 자존감 보호를 위해 교육비 지원방식을 학생이 교사에게 신청하는 방식에서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폭력과 안전사고 걱정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학생안전강화학교를 2010년 초등학교 1,000개교에서 2011년에는 중 · 고를 포함한 1,600개교로 확대하고 경비실 설치, 청원경찰 · 민간경비 배치, 출입문 통제 등을 지원하게 된다. 24시간 CCTV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011년 41개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230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

Ⅱ. 교육-일 연계 선진직업교육체제 구축

둘째, 『교육-일 연계 선진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한다.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를 통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진로 · 진학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 1,500개 고등학교에 진로 · 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된다. 앞으로 2014년까지 모든 중 · 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진로 · 진학교육과 입학사정관제 전형준비를 지원한다.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이 지원되고, 선취업 후진학 체제가 강화된다. 특성화고는 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과 현장실습 · 해외인턴십 등 취업역량 강화 지원('11년 610억원)으로 취업에 강한 명품 직업학교로 육성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2010년 2월 19.2%에서 2013년 2월까지 50%로 연차적으로 높여나간다. 특성화고 졸업자 중 취업자에 한해 2012년부터 기업규모 · 업종에 상관없이 4년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재직자 특별전형제도를 거점 국립대학으로 확대한다.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와 함께 취업역량과 재정건전성 등이 뛰어난 상위 20개 전문대학을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육성한다. 선정된 대학은 교원충원률 기준과 대학입학 정원외 모집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게 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자격이 주어지는 시스템도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시범 도입한다.

Ⅲ.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셋째,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의 창의적 인재 발굴 육성을 지원하고 국립대 선진화와 사립대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 내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입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의 창의적 인재 발굴 육성을 지원하고 국립대 선진화와 사립대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 내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 회피 · 제척제도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서류 위조 · 표절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학사정관제 회피 · 제척제도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서류 위조 · 표절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 사교육 유발 전형요소 배제 여부 등을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여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재정지원사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국립대 선진화 및 사립대학 구조조정도 본격 추진된다.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10.12)에 따라 서울대는 국가행정기관의 성격을 탈피하여 2011년 12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거점 국립대는 법인화 여건이 조성된 대학부터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법인화 준비를 지원하고 더불어 학장 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 경영정보공시제 도입 및 국립대학 재정 · 회계법 제정 등 국립대 경쟁력 강화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립대 법인화와 함께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제한제도를 안착시키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부실대학의 출구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나아가, 산학협력 선도대학 50개교를 육성하기 위해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취업보장형 교육트랙, 특성화 전공 개설, 산학협력가족회사 맞춤형 지원 등 우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간다. 우선 내년에는 광역인재양성사업 및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의 필수 성과지표에 산학협력 핵심지표를 반영하고, 2012년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으로 통합 · 개편한다.

Ⅳ. 세계적인 과학기술인재 육성

넷째,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 시너지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먼저,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초 · 중등 교육과정에 STEAM 교육(과학예술 융합교육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과학 · 기술 · 공학 · 수학의 학습내용을 핵심

역량 위주로 재구조화하고 과목 간 연계를 강화하며, 예술적 기법을 접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국내외 연구소 · 대학 · 기업 등이 보유한 첨단시설과 우수인력을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연수 ·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미래형 과학기술' 교실과 수업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경력 단계별 추적관리를 통해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는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을 완성하고, 우수 연구자 지원 트랙과 연계하여 학부생에서 국가과학자에 이르는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세계 수준의 국내 박사 양성을 위한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지원사업을 시행(박사과정생 300명에게 2년간 연 3천만원 지원)하고, 신진 박사(박사後 과정)의 초기 일자리와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는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사업(시범으로 박사후 과정 15명에게 5년간 연 1.5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나아가,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역량을 강화하여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 초일류 대학(원) 3개교를 포함하여 200위권 대학원(연구) 중심대학 10개교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BK21사업, WCU사업 등으로 분산된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을 WCU사업과 GPS시스템으로 통합 · 체계화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행 석사 중심의 대학원 운영체제를 박사과정 중심의 선진화된 대학원 운영체제로 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4개의 과학기술대학(원)(KAIST, GIST, DGIST, UNIST)을 세계적 연구거점이 되도록 특성화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해 나간다. 나아가, 출연(연)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사기진작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출연(연)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관 고유사업비 비중을 확대하고,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효율적 인력 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인 연금 수혜율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2011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우수연구원에 대한 선별적 정년연장을 검토하여 추진한다.

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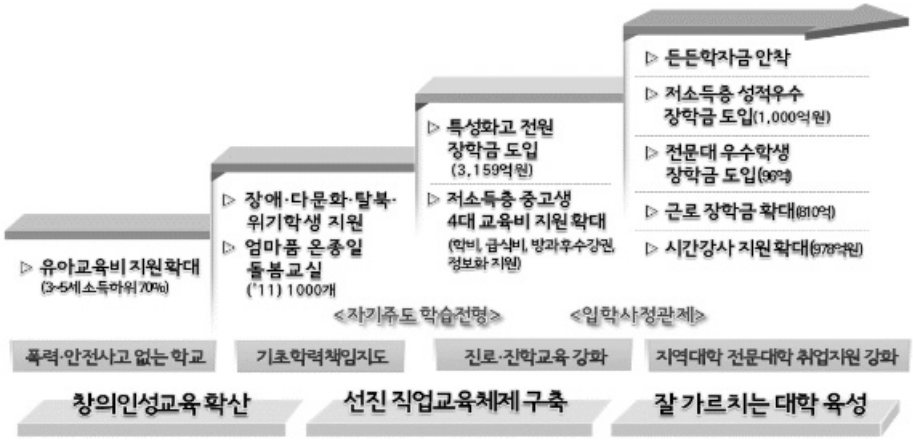
다섯째,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을 통한 전략적 국가 R&D 체제가 구축된다. 2011년 4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된다. 국과위가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되고, 교과부 소속 국과위 사무국은 사무처로 독립되어 확대 · 신설된다. 개편된 국과위는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주요 계획을 종합 조정하며, 국가 R&D 포트폴리오 종합 기획, R&D 예산의 배분 · 조정 및 평가 · 성과관리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내년 4월경 국과위 출범으로 과학기술정책과 2012년 이후 R&D 예산 배분 · 조정 등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세계적 지식창출의 허브가 될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이 내년 초부터 본격 추진된다. 2011년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이온 가속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을 통한 전략적 국가 R&D 체제가 구축된다. 2011년 4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된다. 국과위가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되고, 교과부 소속 국과위 사무국은 사무처로 독립되어 확대 · 신설된다.

기」 상세설계에 착수한다. 아울러 법적 절차와 요건에 따른 최적의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글로벌 정주여건 조성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11.12)한다. 이외에도, 국가 R&D 투자를 확대하여 기초 · 원천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거대과학을 육성한다. 기초연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해 「100대 유망 기초연구 분야」를 발굴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본격 추진(7개 사업단)하는 한편, 'CO_2 포집 · 저장기술'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한다. 원자력분야에서는, 'SMART(일체형 중소형 원자로)' 표준설계 완료('11.12)와 '연구용 원자로'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한다. 우주분야에서는, 나로호 발사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천리안위성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다목적실용위성 5호' 발사('11.6~7월)에 맞추어 '국가위성정보 관리 ·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Ⅵ. 교육과학기술 글로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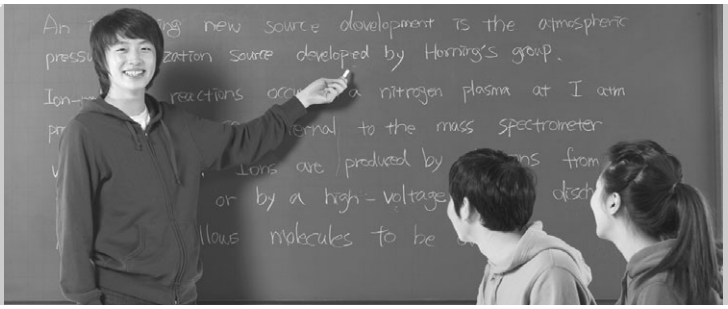
다섯째,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으로 『교육과학기술 글로벌화』도 박차를 가하게 된다. 국내 인재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 교사의 해외진출과 연수기회를 2011년 700명, 2012년 1,100명 규모로 확대하고, 각 부처에서 이관 받은 청년 해외인턴사업을 통합 · 운영한다. 개도국에 대한 교육과학기술 발전경험의 전파를 강화하는 한편, 이러닝사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우리 교육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한국학교 우수모델을 발굴 · 육성하고, 한국어 보급 지원 국가도 2010년 13개국에서 2011년 18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국격을 제고해 나간다. 교육과학기술 글로벌화를 위해 한 · 미 교육장관회담, 한 · 중 · 일 과학기술장관회의 등의 개최를 추진하고, 인도 · 브라질 등 발전가능성이 큰 국가들과의 과기공동위원회 신설 등 과학기술분야의 협의채널을 확대한다.



[그림 2]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
– 공교육 내실화와 맞춤형 복지를 통한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 –

Ⅶ. 교육희망사다리 구축과 주요 교육과학기술정책의 현장착근

6대 중점과제에 걸쳐 강조되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희망사다리 구축』이다. 유아단계부터 대학까지 각 단계별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확대된다. 유아단계의 기초학습능력에 대한 책임지도 강화 등을 위해 총 6,232억원을 투입하여 소득분위 70% 이하 만 3~5세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들의 4대 교육비(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PC ·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늘어난다. 특히, 3,1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간 지원받지 못했던 특성화고 학생 26만여 명에게 장학금(수업료+입학금)을 지원하고, 취업역량 강화사업을 대폭 확대(2011년, 610억원)하여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대학단계에서는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96억원)과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1,000억원)을 신규로 도입한다. 든든학자금도 학생이용 부담경감과 편의증진을 위해 생활비 대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대출금리 추가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특징은 2011년에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기보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주요 교육과학기술정책의 현장 착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정책의 현장 착근을 위해 내년에는 현장지원 중심의 파트너십과 정책고객 중심의 소통이 더욱 강화된다. 이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연구자들이 교육과학기술의 변화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11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요 정책기조 및 추진방향

글_ 나근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 인천광역시교육감

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개 및 현황

전국시 · 도교육감협의회는 1992년에 만들어져 운영돼 오다가, 교육감 상호 간의 교류협력과 공통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08년 1월 25일 공식적으로 창립총회를 갖고 협의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교육감들이 당선, 취임하여 2010년 7월 이후 총 4번의 협의회를 가졌다. 그 동안 주요 교육 정책 및 현안과 관련하여 모두 15건을 의제로 상정, 협의하였으며 그 가운데 12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였다. 이와 함께 고교 연합학력평가 시행방안 등을 자체 검토하여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평가횟수를 연간 2회 또는 4회 중 시 · 도교육청별로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 학습부담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신중하고 세밀하게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력과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취임 초기에만 해도 교육감들의 성향이 달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한 가지 의제에 대해 여러 의견을 다양하고 활발하게 개진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시 · 도교육청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다 보니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방법 상에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교육 내실화와 신뢰회복,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에 대한 본질적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동안 전국시 · 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을 협의하고 교육자치의 발전방안을 논의해 대안을 내놓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다. 현재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정책 및 현안, 교육자치 외에 지방교육재정, 교육격차 해소, 입시제도 등 다양한 주제와 사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으나 시 · 도교육청이 모여서 제반 정책과 현안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에, 일반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를 구성하여 사무국을 두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시 · 도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며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국시 · 도교육감협의회의 법정 기구화와 산하 사무국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교육감이 지방의 여건에 맞는 공교육을 추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 · 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감들도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여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교육감 직선제와 지방교육자치의 중요성

2010년도는 시 · 도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 매우 의미 있는 해였다. 일부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일반 지자체와의 통합' 을 주장하지만, 이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지방자치제도가 견고하게 발전하려면 교육감과 시 · 도지사라는 양쪽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상호 연계 · 협력할 주체이지 통합 대상이 될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시 · 도교육청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며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국시 · 도교육감협의회의 법정 기구화와 산하 사무국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에 정치적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 직선제 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해 직선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문제해결의 본질이 될 수 없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는 없다. 교육에 대한 해법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합당치 않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에 정치적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 직선제 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해 직선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문제해결의 본질이 될 수 없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말한다. 그만큼 교육은 먼 앞날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이란 뜻이다. 다른 정책과 다르게 교육관련 정책은 곧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지방교육자치가 유지되고 더욱 발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Ⅳ. 교육은 '우리'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교육은 한명이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여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과 다양한 시각이 교육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나와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배척하기 보다는 서로 소통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의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 · 도교육청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시 · 도의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새롭고 다양한 정책들이 단기간 내에 현장에 안착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입시제도,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은 어느 개인의 생각과 판단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교육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해서도 안 되며, 너무 한 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된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국민 모두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정책방향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각 지방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 · 도교육청도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교육문제 해결에 맡겨진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Ⅴ. 2011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계획

전국시 · 도교육감협의회는 2011년에 자율과 책무를 기본바탕으로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10년이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학교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단계였다면, 2011년에는 각 시 ·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일선현장에 정착화되는 단계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된 교육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와 시 · 도교육청이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요컨대, 중앙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정책방향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각 지방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 · 도교육청도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교육문제 해결에 맡겨진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시 · 도교육청별로 주어진 여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시 · 도교육청별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보태주고,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앞에서 밝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법정기구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도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감협의회에서는 2011년도에 각종 공청회 및 심포지엄 등을 열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모든 시 · 도교육감들이 마음을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시 · 도교육감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 주요 연구 및 사업 추진방향

글_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

한국교육개발원은 1972년 설립 이래 교육정책 및 현안에 관한 종합적이고 ·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연구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의 여러 역할과 기능들이 교육방송(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평생교육진흥원(NILE) 등 해당 기관의 신설과 함께 분산되었다. 반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수준 높은 교육정책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해 한국교육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 결과, 세계적인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Ⅰ. 2010년 연구 ·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세계적 교육정책연구기관 지향

2011년 연구 및 사업의 방향은 2010년 연구 및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세계적 교육정책연구기관을 지향하는 경영목표를 실현하는 데 보다 강조점을 두고자 한다. 2010년에 다음 [그림 1]과 같이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교육정책연구기관' 이라는 비전 아래 기관의 5대 경영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10년 한 해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요구를 긴밀하게 반영하고 국가와 국민의 교육적 요구에 보다 더 잘 부합하기 위해 공교육의 내실화, 책무성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을 적극 수행하였다. 그리고 선진국 교육의 경험을 한국적 맥락에서 수용하여 한국교육의 발전모델을 개발, 전파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강화하고자 국제교육개발협력센터를 신설하였다. 또한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미래교육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원장 자문기구로 미래교육기획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다양한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정책현안위원회를 2주 1회 운영하였다.

2010년의 성과를 토대로 새해에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 학교 자율화,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여러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교육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은 물론 미래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데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Ⅱ. 2011년 연구·사업의 중점 방향

2011년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적인 교육정책연구기관의 지향이라는 기관의 비전과 5대 경영목표에 근거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하였다. 2011년도 연구사업의 중점방향은 '미래교육 비전 연구 강화, 고등교육 연구 확대, 교육 지표 및 지수 개발, 글로벌 교육협력 강화'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학교교육 정책 즉, '공교육 내실화, 책무성 강화, 사교육 절감' 등을 위한 연구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연구사업의 중점방향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KEDI의 비전과 기관경영 목표

세계적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교육분야의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도 중요하지만, 21세기 지식융합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교육의 비전과 그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개혁 정책 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미래교육비전 연구 강화

세계적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교육분야의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도 중요하지만, 21세기 지식융합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교육의 비전과 그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개혁 정책 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분야의 여러 영역의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제간 연구의 형태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교육의 뉴패러다임과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에 미래교육비전 제시를 위해 원장 직속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미래교육기획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이 직접 저술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 미래교육의 전략(가칭)' 이라는 저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 고등교육 연구 확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의 확대와 함께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제기되면서 고등교육분야의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해 글로벌한 관점에서 증거기반의 정책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 고등교육개혁 동향 분석,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 및 효율적 운영방안, 든든학자금(ICL) 운영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글로벌 교육동향 분석 및 국 · 내외적 데이터분석에 근거해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교육 연구 확대를 위해 본부 명칭도 고등교육연구본부로 바꾸고, 연구인력의 보충 및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 교육 지표 · 지수 개발 및 데이터 분석 연구 강화

'증거기반 정책연구' 가 교육을 포함한 공공정책 연구의 뚜렷한 국제적 경향(트렌드)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이 교육계뿐만 아니라 경제, 고용, 복지 등과 연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됨에 따라 교육 지표 · 지수 개발 및 데이터 분석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교육정책 연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으로, 국가차원 또는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여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은 물론, 한국의 경험을 개도국에 지원해 달라는 국제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교육협력의 허브역할을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21세기 글로벌사회에 적합한 한국교육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교육협력을 위한 연구사업의 확대가 요구된다.

다. 이를 위해 교육지표 · 지수연구실을 신설하고, 연구기관 간 교육통계 연계 및 주요 교육 지표 · 지수 개발 연구, 주요 교육정책이슈 관련 데이터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4. 글로벌 교육협력 강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통해 경험했듯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은 물론, 한국의 경험을 개도국에 지원해 달라는 국제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교육협력의 허브역할을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21세기 글로벌사회에 적합한 한국교육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교육협력을 위한 연구사업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새롭게 미국 교육과학연구원(IES)과의 정례적 공동연구 추진, 5월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여러 국가 교육지도자들의 모임인 글로벌 교육지도자회의(GELP) 개최, 11월 한국교육개발원-OECD-World Bank 공동학술회의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 OECD와 공동연구로 '교수 - 학습 국제조사(TALIS) 1주기 결과 분석 및 2주기 지원 연구', '교육과 사회진보(ESP: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국제비교연구' 및 '고등교육 학습성과평가(AHELO) 국제비교연구(III)'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과학기술협력 연구를 수행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0년 1월 아프리카 53개국 교육장관들이 참여하는 아프리카교육발전협의회(ADEA)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2011년도에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실 신설과 함께 일부 센터를 관련 연구실에 배속시킴으로써, 기존의 8연구실 13센터 체제를 10연구실 10센터 체제로 개편하였다.

Ⅲ. 2011년 여타 연구 · 사업의 내용

2011년도에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실 신설과 함께 일부 센터를 관련 연구실에 배속시킴으로써, 기존의 8연구실 13센터 체제를 10연구실 10센터 체제로 개편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자치 및 일반자치와 관련하여, 중앙 - 지방 - 학교 간의 자율권 배분 및 교육감 선출제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지역교육지원청의 기능 · 조직 · 인사 개선방안 연구, 일반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실태 및 성과 분석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교사양성 교육과정 및 선발방식 개선 연구, 교사의 발달단계별 능력 개발 및 평가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통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차원에서 한국교육종단연구,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초등학교 연구 등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 연구, 초 · 중등학생의 시민의식 실태분석과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복지 통합지원 · 관리체제 구축 방안 연구, 지역 평생학습정책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교육시설정책지원(BTL) 연구, 격년제로 실시하다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1) 등이 수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년차 계속되는 연구로 사교육 진단 및 대책(Ⅱ), 탈북청소년 교육종단 연구(Ⅱ), 한국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연구(Ⅱ),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Ⅱ)가 있고, 3년차 연구로 청장년시기(15-45세) 과학기술인재 발달 및 육성 종합전략 연구(Ⅲ),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방안 탐색 및 프로그램 개발(Ⅲ), 그리고 각각 4년차와 7년차 연구인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조사 연구(Ⅳ), 교교 - 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연구(Ⅷ)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리 보는 2011년 EBS

2011년 EBS 경영지표와 주요 프로그램, 수능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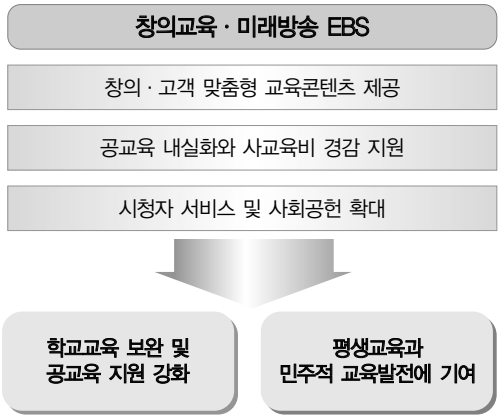
정리_ 윤문상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정책기획센터장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총칙 제1조에는 EBS의 설립목적을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EBS는 설립목적과 같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 즉 창의 · 인성교육을 기본으로 온 국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기관이다. 2010년이 국민과 함께 교육에 대해 고민해 온 EBS가 괄목한 성과를 거두고, 교육방송 36년, 공사창립 1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였다면, 2011년은 이를 원동력으로 미래를 준비해가는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Ⅰ. 창의교육 · 미래방송 EBS

EBS는 EBS, EBS-FM, PLUS1, PLUS2, EBSe, EBSu, EBS AMERICA 등 7개의 방송채널과 4개의 웹사이트를 운용하는 교육미디어그룹이다. 그동안 EBS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들을 거둬왔다. 유아 ·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 ·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그림 1] EBS 장애인 사이트(http://free.ebs.co.kr)



[그림 2] 2011 EBS 경영지표 및 전략목표

교육을 보완하고 지역 · 소득의 차이를 넘어 교육기회 평등을 실현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10년에는 장애인을 위한 사이트(http://free.ebs.co.kr)를 개설하여 화면해설, 수화, 자막방송 등의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학습편의를 강화하였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대폭 확대하여 플러스 1으로 방송되는 수능 프로그램에 한해서 자막을 제공하던 것을 2010년 6월부터는 인터넷에 탑재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자막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외국에 있는 청각장애학생들 부모까지 국가의 고마움을 느낀다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과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안목으로 시대의 흐름을 살피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이 칠판 앞에서, 혹은 교과서로만 이루어지던 시대는 지났다.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미디어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맞게 수요자의 요구를 읽고 디지털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2011년 EBS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미디어가 아닌 콘텐츠 중심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화와 성장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1년에 EBS가 역점을 두고 펼쳐 나갈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이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EBS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EBS에서 구축중인 EDRB(Educational Digital Resource Bank - 5분 정도의 비디오 클립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현장의 선생님들이 다양한 주제의 동영상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창의 · 인성교육 콘텐츠를 강화하여 어린이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세대의 주역들의 창의 · 인성교육에 필요한 자료들

EBS-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한국기행', '세계테마기행'과 '다큐프라임' 등과 같은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상업성과 오락성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 방송문화에서 EBS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나누어야 할 것들,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 방송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대화하게 하는 견고한 보루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국내 · 외의 우수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공유함으로써 아이들이 미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셋째,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전 국민의 지적 함양을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이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EBS는 질적으로 우수하면서도 접근이 수월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넷째,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가의 역량을 이끌어 낼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EBS는 사회적 실질 배려대상 계층에 대한 지원과 재외동포 및 해외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등, 국민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Ⅱ. 2011, 다가가는 방송 EBS

EBS-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한국기행', '세계테마기행'과 '다큐프라임' 등과 같은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상업성과 오락성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 방송문화에서 EBS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나누어야 할 것들,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 방송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대화하게 하는 견고한 보루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유아 ·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유아 · 어린이는 물론, 그 또래의 가족구성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뽀로로"나 "방귀대장 뿡뿡이", "번개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시청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EBS - FM, EBSe 등을 통해 지식기반 글로벌 시민 육성을 위한 고품격 외국어 프로그램들과 다문화사회의 소통지수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 · 방송하고 있다. 이처

[그림 3] 세계테마기행

럼 EBS는 수능방송 외에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아 · 어린이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 등 교육의 본질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왔다.

다큐멘터리 한 편은 단순한 볼거리나 기록물이 아니라 아카데미즘에 기반한 훌륭한 교육적 콘텐츠가 된다. 그래서 EBS의 다큐멘터리는 에듀멘터리(EDUCATION +DOCUMENTARY)다. 전달방식이 다를 뿐, 제작 · 방송된 다큐멘터리를 분절 후 클립화하면 훌륭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에 방송된 10부작 '학교란 무엇인가' , 가 좋은 한 예이다. '학교란 무엇인가' 는 우리 학교의 현실과 미래를 조명하여 가정과 학교에 뭉클한 감동과 함께 반향을 일으킨 이 교육 다큐멘터리는 우리에게 '교육의 본질과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 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 의미 깊은 교육적 콘텐츠였다. 미래지향적인 창의 · 인성 교육프로그램들이나 평생교육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이다.

2011년에도 EBS는 앞서 말한 '창의교육 · 미래방송 EBS' 를 경영지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학교교육 보완 및 공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EBS TV에서는 청소년 자녀들의 진로 직업 고민, 성공적인 자녀교육기 등을 통해 부모와 사춘기 자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는 프로그램 〈청소년 상담 프로젝트 사춘기(가제)〉, 이어령 교수의 창조와 인문 이야기를 통해 지식과 창조적 상상력을 공유하게 하는 창의력 프로그램 〈이어령의 창조토크〉,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즐거운 창의체험〉 등을 신설한다. 그리고 수준 높은 교육다큐멘터리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이를 분절 · 클립화하여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EBS TV, EBS - FM 등에서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실용 한국어(중급), 몽골어 · 태국어 · 인도어 등의 제2외국어 프로그램과 퀴즈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문화 퀴즈 쇼〉 등도 신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0년 EBS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3D 입체영상 다큐멘터리 - 앙코르 문명' 을 2011년 방영할 예정이며 그 뒤를 이어 역시 3D 입체영상 다큐멘터리인 '위대한 바빌론' 을 준비 중에 있다. 또 어린이들의 역사의식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EBS TV, EBS - FM 등에서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실용 한국어(중급), 몽골어 · 태국어 · 인도어 등의 제2외국어 프로그램과 퀴즈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문화 퀴즈 쇼〉 등도 신설할 계획이다.

[그림 4] EBS 교육대기획 10부작 〈학교란 무엇인가〉

[그림 5] 3D입체 다큐멘터리 〈앙코르 문명〉

및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해 한국사 애니메이션 100부작도 기획하여 2011년부터 매년 20부작씩 5년에 걸쳐 방송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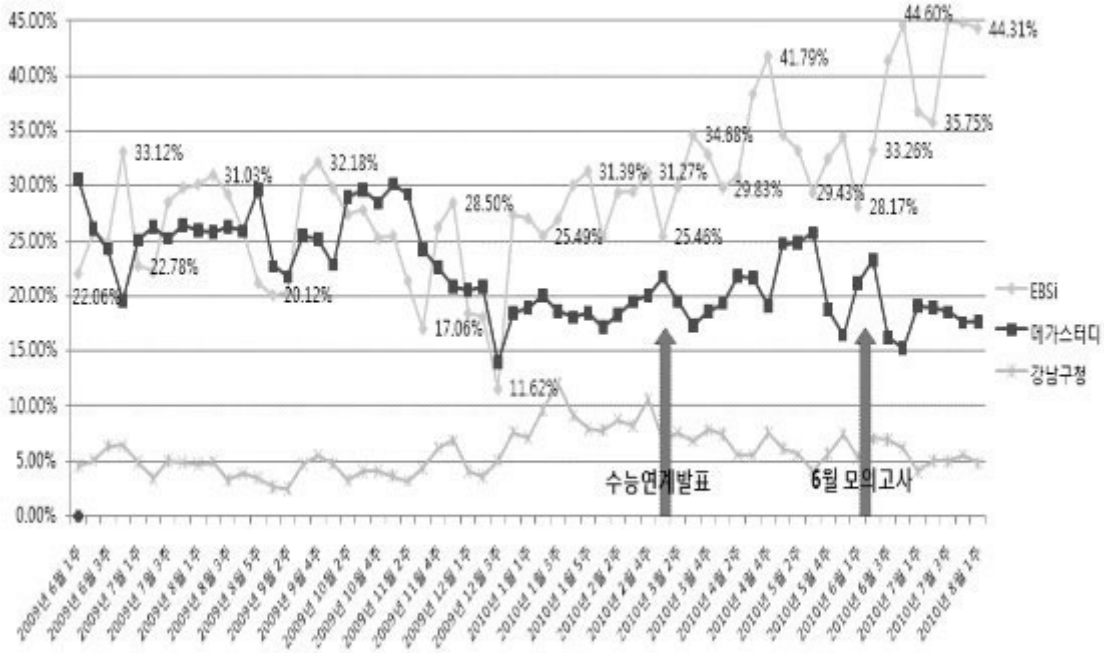
또한 2010년에 63개국 536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제7회 EBS국제다큐영화제(EIDF)에 이어 2011년에도 제8회 EIDF 개최를 준비 중이다.

Ⅲ.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의 노력

EBS 수능교재 · 및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는 2011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011학년도 대수능이 치러진 이튿날인 12월 19일, EBS에서 방송된 수능 특집 생방송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한 학부모들의 '신뢰' 를 당부하며 "EBS 수능강의와의 연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 이라 밝힌 바 있다.

EBS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정부당국의 교육정책에 부응하여 학교교육의 보완과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수능 및 교과 관련 강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특히 2010년에는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교재 및 출연 강사진의 강화는 물론 수능 웹사이트를 수요자 중심의 Web 2.0기반으로 전면 개편하여 학습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별 수능강의 특별 순회강

EBS 수능교재 · 및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계는 2011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011학년도 대수능이 치러진 이튿날인 12월 19일, EBS에서 방송된 수능 특집 생방송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한 학부모들의 '신뢰' 를 당부하며 "EBS 수능강의와의 연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 이라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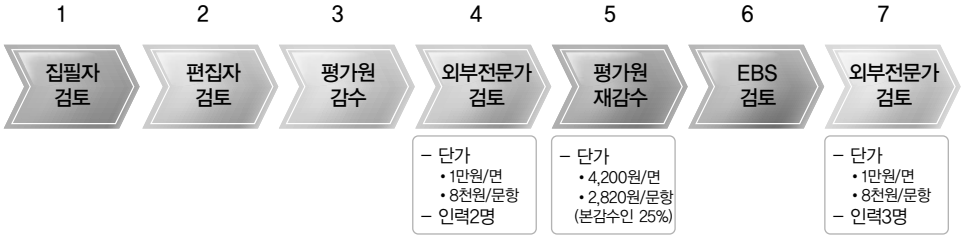
[그림 6] EBSi 점유율 추이 (2010년 9월 랭키 닷컴 기준)

의 서비스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수능강의 인터넷 점유율 면에서 유명 사설 과외 사이트와의 간격을 2배 이상 벌리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학교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EBS의 수준별 맞춤형 콘텐츠를 들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충실하게 듣고 자기 수준에 맞는 기초과정이나 고난도 과정을 EBS 수능강의로 듣게 함으로써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수준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010년도의 경우 수능강좌 중 고급강좌 비율이 15.5%, 초급강좌가 8%에 불과하여 수준별 강좌가 미흡했다. 그래서 2011년에는 고급강좌 25%, 초급강좌 15%로 그 비율을 확대하는 등 문제풀이 중심의 강좌보다 심화, 개념 학습 중심으로 수준별 강좌를 대폭 확대하여 학습자의 학습 편의와 효용을 높일 예정이다.

수준별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수업의 보충자료로 제공했던 5분 미만의 분절형 콘텐츠도 각 영역별로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교사들이 제재에 따라 분절형 자료들을 수업시간에 다운로드 받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수업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올해 대수능 연계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교재의 질을 개선하고 무오류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5단계 검토시스템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재검수 단계 신설을 포함



[그림 7] EBS교재 개선 검토시스템 : 7단계

한 7단계로 조정하였으며 보다 철저한 검토를 위해 모의고사와 학력평가, 또 수능 검토 경험이 많은 전국의 고교 교사 254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검토전문교사 인력풀을 구성했다.

2010년 중반부터 도입된 이러한 검토시스템이 2011년에는 정착되어 안정되게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1년에는 교재의 질적 개선도 확신하고 있다.

아울러 EBS에서는 학교수업을 보완하기 위한 본격적인 학습자료 DB인 EDRB(Educational Digital Resource Bank)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교 교사들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이후 EBS가 개발한 29만 문항을 문제은행으로 구축하여 2011년 2월부터 교사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문제은행이 구축되면 교사들이 직접 학교에서 EBS 문항들을 활용하여 학교 수업 후 각 단원에 맞는 다양한 형성평가나 진단평가 문항을 출제하거나 방과후학교 수업시간에 학생들 개인별로 수준에 맞게 문항을 제공하는 등, 수준별 수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BS는 153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년 방송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공익채널 선정에 있어서도 EBS의 3개 채널이 모두 선정되었다. 방송사 재허가 기간도 다른 지상파의 재허가 기간보다 1년이 더 긴 4년을 허가 받았다. 일련의 EBS의 변화 노력과 성과에 좋은 평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EBS가 처한 여건은 그리 넉넉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원의 뒷받침이다. EBS의 전체 예산 중 공적 재원은 30% 내외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EBS에 배분되는 수신료는 현재 TV 수신료 2500원 중 70원(전체 수신료의 2.8%)에 불과하다. 해외 공영방송의 교육문화 채널 재원 배분율을 보면 영국의 BBC 29%, 일본의 NHK 20%, 프랑스 16%로 공영교육방송인 EBS의 지금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공영교육방송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대목이다. 향후에도 앞서 언급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EBS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볼 때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북유럽 국가의 교육 ODA 발전과정과 현황
-스웨덴을 중심으로-

글_ **이태주** 한성대학교 교수, ODA WATCH 대표

스웨덴의 공적개발원조(ODA)는 모든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모범국가이다. 인도주의적 특성과 정치적 중립성, 최빈국 우선지원과 100% 무상원조 실시, 1인당 원조액과 GNI 대비 ODA 비중 등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이미 1976년에 유엔의 0.7% 권고를 훨씬 넘어서 GNI 대비 1% 원조를 달성한 바 있으며 1978년부터 ODA의 완전 무상화를 단행하여 100% 무상원조와 양허율 100% 양질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Ⅰ. 노르딕의 모델 스웨덴 ODA

노르딕 모델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공적개발원조(ODA)는 모든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모범국가이다. 인도주의적 특성과 정치적 중립성, 최빈국 우선지원과 100% 무상원조 실시, 1인당 원조액과 GNI 대비 ODA 비중 등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이미 1976년에 유엔의 0.7% 권고를 훨씬 넘어서 GNI 대비 1% 원조를 달성한 바 있으며 1978년부터 ODA의 완전 무상화를 단행하여 100% 무상원조와 양허율 100% 양질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제3세계의 애인' 이라는 평판을 들을 정도로 스웨덴의 대외원조는 원조의 양과 질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 ODA의 전략적 정책문서인 〈글로벌 발전정책〉(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PGD)은 2003년 말에 스웨덴 의회와 정부가 만들어낸 스웨덴 원조정책의 최고 가이드라인이다. 법은 아니지만 이 정책문서는 글로벌 차원의 발전문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문건이며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전 지구적 발전'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서이다. 〈글로벌 발전정책〉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국가 ODA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스웨덴 대외원조 정책에 관한 최고의 정책문서이다. 또한 〈다함께 2015로〉(Together toward 2015)라는 보고서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인지제고 캠페인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MDG

스웨덴의 총 공적개발원조(ODA) 중에서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예산비중은 기초교육 2%를 포함하여 총 8% 정도이다. 스웨덴은 교육부문 협력에서 최고의 공여국이라고 세계의 NGO들이 평가할 정도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달성계획이 예시되어 있다. 스웨덴은 MDG 달성을 위한 공여국의 보고의무를 적극 지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선진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글로벌 발전정책〉은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전 지구적 발전'을 일관된 정책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발전의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발전은 결코 외부로부터 창출되는 것도, 강요되는 것도 아니다. 발전은 자신이 속한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파트너들의 의견을 보다 더 경청해야만 하며 수원국의 요구를 중시해야 한다. 우리의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경험과 잠재력과 우선수위에 보다 더 기초해야 한다. 우리는 빈곤감축에서 평화와 민주주의, 좋은 정치, 유아 및 청년에 대한 투자, 경제성장, 수익과 자원의 공평한 배분, 성평등과 같은 요소들이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1)]

스웨덴 교육협력정책의 이념도 〈글로벌 발전정책〉에서 정하고 있는 정책목표와 8개의 개발정책 핵심요소[2)]들을 통해 규정된다. 특히 인권존중과 양성평등 정책은 교육협력정책에서 핵심적 요소가 된다. 외교부와 스웨덴국제개발청(Sida)이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있어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 RBA)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교육, 여성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교육은 인권존중과 인권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빈곤층과 청소년, 여성들의 문해율을 높이는 것은 인권신장과 시민사회 발전, 주변화된 계층의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스웨덴의 총 공적개발원조(ODA) 중에서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예산비중은 기초교육 2%를 포함하여 총 8% 정도이다. 스웨덴은 교육부문 협력에서 최고의 공여국이라고 세계의 NGO들이 평가할 정도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개 개발도상국과 양자간 교육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유니세프, 세계은행의 긴급자금지원(FTI) 등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 교육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Ⅱ. 목표는 '모든 인간의 교육권 강화'

교육분야에서 스웨덴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는 탄자니아, 아프가니스탄, 케냐, 온두라스, 볼리비아, 말리, 우간다, 라오스,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나미비아 등이다. Sida의 한 부서인

1) OECD(2005). DAC Peer Review: SWEDEN
2) 인권 존중, 민주주의와 좋은 정치(good governance), 양성평등,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환경보호, 경제성장, 사회개발과 사회안전망, 분쟁관리와 인간안보, 지구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스웨덴의 교육협력은 인권에 기반한 개발에 기초하고 있으며, 교육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교육을 통해서 빈곤퇴치와 민주화, 분쟁예방, 차별철폐,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은 민주화와 법치의 기본이 된다. Sida는 '모두를 위한 교육' 과 MDG에서 정한 2015년까지 세계 초등교육 목표달성과 교육에서의 성차별 철폐를 교육협력의 기본목표로 정하고 있다.

민주화와 사회개발부(DESO)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으며 유엔여아교육계획(UNGEI)과 유네스코의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을 특별히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의 교육협력은 인권에 기반한 개발에 기초하고 있으며, 교육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교육을 통해서 빈곤퇴치와 민주화, 분쟁예방, 차별철폐,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은 민주화와 법치의 기본이 된다. Sida는 '모두를 위한 교육' 과 MDG에서 정한 2015년까지 세계 초등교육 목표달성과 교육에서의 성차별 철폐를 교육협력의 기본목표로 정하고 있다. 교육협력 프로그램은 포괄적 분야 접근방식(Sector-wide approach, SWAP)을 통해 파트너 국가의 교육정책과 전략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스웨덴의 개발도상국과의 교육협력은 모든 인간의 교육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히 빈곤층과 사회적 배제 계층의 역량강화와 발전과정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스웨덴은 2000년에 다카르에서 채택된 '모두를 위한 교육 실천계획 (The framework of action in education for all)' 에서 정한 6개의 목표[3]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스웨덴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정한 2015년까지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과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성차 극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교육협력의 기본목표로 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교육 ODA 추진원칙은 파트너십과 주인의식(ownership)이다. 파트너십은 '모두를 위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공여국과 공여기관들이 국제기구, NGO 및 개도국의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의 목표와 규범을 공유하여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파트너십이 모색되고 있으며 개발협력기관들이 제정한 '교육분야 지원기관들을 위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Education Sector Funding Agencies)' 을 스웨덴도 주요 행동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협력국가의 주인의식을 존중하고 공여국가들 사이에 원조조정을 통해 원조의 효과적 분담과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원조조정과 조화의 원칙은 교육부분 프로그램에서도 역량개발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원칙이다.

3) 1. 초기 유아교육, 특히 취약계층과 장애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 확대 심화,
2. 2015년까지 여아와 소수민족 등 어려운 환경에 놓인 모든 아동들에게 양질의 자유로운 보편적 초등교육 수료기회의 제공
3. 적절한 학습과 생계기술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청년과 성인들의 학습욕구를 충족
4. 2015년까지 성인 문해율을 50% 향상시키고, 특히 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성인들에게 기초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
5.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 격차를 해소하고 2015년까지 여아들에 대한 공평하고 양질의 기초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에 있어서 성평등을 달성
6. 모든 측면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두에게 우수한 교육, 특히 문해와 수학, 생계기술에서 측정가능하고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학습성과를 달성

스웨덴의 총 공적개발원조(ODA) 중에서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예산비중은 기초교육 2%를 포함하여 총 8% 정도이다. 스웨덴은 교육부문 협력에서 최고의 공여국이라고 세계의 NGO들이 평가할 정도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은 모든 파트너십의 출발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원칙은 개방성과 투명성, 상호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빈곤층의 여성과 남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든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적인 교육체계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교육정책에서 인권과 민주적 가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처럼 스웨덴의 교육협력은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에 있어서의 제반 권리와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것을 주된 원칙으로 한다. 특히 교사들의 참여는 교육개혁의 합법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는 주민들을 의사결정과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전달체계의 비용을 효율화하는 데도 중요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빈곤감축과 기초교육 전략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의 하나로써 기초교육에 대한 투자는 한 국가의 성장과 빈곤감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는 점을 스웨덴은 명확히 하고 있다. 국민소득과 정부 예산 중 일정 부분을 기초교육에 할당하지 않고서는 빈곤감축 목표를 결코 달성할 수 없다. 빈곤층 여성과 남성의 역량강화도 이들에 대한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빈곤감축은 교육의 개선을 촉진하고, 교육은 빈곤감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빈곤층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교육 지출을 늘리고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의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스웨덴 교육협력의 방향이다.

Ⅲ. 재정지원 · 대화파트너 · 역량구축 형태로 진행

마지막으로 스웨덴 원조기관인 Sida의 교육분야 지원원칙은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이다.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개발원조가 불필요하게 하기 위해서 Sida는 역량과 제도 구축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역량구축은 교육훈련과 연구를 포함하며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분야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역량구축에서는 일방적 지식이전이 아닌 쌍방향의 학습과정으로서 '지식과 수행능력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Sida의 교육협력은 EFA를 달성하기 위해서 파트너 국가의 교육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특정 국가의 맥락과 상황에 맞는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문해교육과 기초교육이 교육협력의 최우선 분야이다. Sida의 교육협력 프로그램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모국어와 현지

Sida의 교육협력은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첫째는 직접 재원을 지원하는(funding) 방식이고, 둘째는 대화 파트너(dialogue partner)가 되는 것이며 셋째는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협력방식을 통해 다카르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 원조기구는 재원을 동원하여 협력국가의 국가계획을 지원하고 효과적 원조를 위해 포괄적 접근방식으로 원조기구들 간의 조정을 강화하며, 기초교육의 달성을 위해 채무탕감과 빈곤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문화를 존중하는 정체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볼리비아, 모잠비크에서의 이중언어 기초교육, 모잠비크의 교과서를 통한 성차별 극복과 독립적 교과서 제작지원을 통한 변화 촉진사업, 볼리비아 원주민 교육과 다원주의, 민속개발교육 등의 사례연구가 이러한 현지언어와 문화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EFA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사훈련과 교육의 질 개선 지원, 평생학습과 성인교육 지원, 교육제도와 교육부 역량강화, 고등교육 지원, 연구역량 지원, 분쟁 등 긴급상황에서의 교육지원, 비정규 교육, 초등교육 지원, 교육부문에서의 성평등 지원, 교사노조 연대지원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스웨덴의 우선 지원분야는 기초교육이지만 고등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 전략에서도 중요하며 기초교육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분야별 프로그램 지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모든 교육협력과 연수 및 연구협력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된다. Sida의 교육분야 지원사업은 항상 파트너 정부의 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기초교육과 문해교육이 1970년대 이후로 스웨덴이 최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교육협력분야이다.

Sida의 교육협력은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첫째는 직접 재원을 지원하는(funding) 방식이고, 둘째는 대화 파트너(dialogue partner)가 되는 것이며 셋째는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협력방식을 통해 다카르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 원조기구는 재원을 동원하여 협력국가의 국가계획을 지원하고 효과적 원조를 위해 포괄적 접근방식으로 원조기구들 간의 조정을 강화하며, 기초교육의 달성을 위해 채무탕감과 빈곤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Sida의 교육협력은 포괄적 프로그램 지원방식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프로그램 합의를 최우선으로 한다. 정부간 합의를 통해 협력국가에서 국가차원의 교육목표와 교육계획을 달성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NGO 등과의 보조적인 합의를 통해 교육 혁신과 민주적 참여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합법적 정구 구성이

스웨덴의 교육협력은 직접적인 예산지원방식(budget support)을 포함하여 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지원과 개선을 위해 섹터 통합접근 방식을 기본 협력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은 아프리카교육개발협의회(ADEA), 유네스코, 선진국과 파트너 국가 NGO 등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교육옹호(advocacy) 활동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어려운 긴급상황에서는 시민사회 조직 등 가능한 수단을 통해 교육지원을 할 수도 있다. Sida는 소위 섹터 통합접근 방식을 분야별 프로그램 지원방식(sector programme support, SPS)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협력국가의 정부예산에 대한 유연하고 단계적인 지원과정을 의미하며, 종종 첫 번째 단계로 교과서 배포나 중등교육 지원과 같이 하위부문에 대한 공동지원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Sida는 다른 공여기관들과 함께 전 교육부분에 대한 프로그램과 지원전략을 확충해갈 수 있다. 결국 분야별 프로그램 지원방식이란 '주인' 인 협력대상국의 자체 교육계획과 예산, 보고체계에 적합한 전체 프로그램 지원을 의미한다. Sida가 프로그램 지원방식의 교육협력정책을 도입하면서 이전까지 개별적인 기초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파트너 국가가 모두를 위한 기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국가교육전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스웨덴의 교육협력은 직접적인 예산지원방식(budget support)을 포함하여 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지원과 개선을 위해 섹터 통합접근 방식을 기본 협력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의 교육 ODA도 100% 무상지원 형태이며 차관원조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교육협력은 UNICEF, UNESCO와 같은 다자기구들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스웨덴은 성평등 개선과 같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교육협력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아프리카교육개발협의회(ADEA), 유네스코, 선진국과 파트너 국가 NGO 등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교육옹호(advocacy) 활동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의 다문화교육

글_ 곽한영 부산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의 모든 근대화과정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게 마련인 문제점들은 서구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강렬한 파장을 몰고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문화교육의 문제도 이러한 사례에서 예외가 아닌 듯하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미 서구의 국가들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겪어왔던 문제들이며,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살피자면 이들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당연하고도 적절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 들어가며

1990년 즈음 이주민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 관련 논의는 결혼 이민자의 증가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양으로 최근 핵심적 의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듯 하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결혼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정책의 핵심적 의제는 단연 다문화교육의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압축적 근대화' 라는 용어가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모든 근대화과정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게 마련인 문제점들은 서구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강렬한 파장을 몰고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문화교육의 문제도 이러한 사례에서 예외가 아닌 듯하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미 서구의 국가들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겪어왔던 문제들이며,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살피자면 이들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당연하고도 적절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해외사례의 연구들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언급되어 왔으나 미국은 애초에 이민자들로 구성된 국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주는 시사점이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 우리 다문화교육의 모습을 비추어볼까 한다.

1960년대 중반 노동당의 집권기부터 영국정부의 다문화정책은 크게 선회하여 '용광로가 아닌 다양한 문화가 동반되는 동등한 기회'를 강조하게 된다(정희라, 2006: 6). 이러한 선회는 과거 영국이 식민지 지배를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문화를 인정하는 방식의 간접적인 통치를 하는 자유주의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도 있다(Joppke, 1999).

Ⅱ. 영국 : '잡동사니 사회'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로

미국처럼 이민자들로 만들어진 국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국 역시 역사적으로 다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가장 먼저 잉글랜드 지방에 정착한 이베리아족은 대륙에서 건너온 켈트족에 패하여 패권을 넘겨주게 되고 이후 켈트족은 4세기에 걸쳐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며 로마인들은 다시 앵글족과 색슨족 등 게르만족에게 지배권을 넘겨주는 등 복잡한 전쟁과 주도권 변화의 역사를 겪었다. 현재 영국의 모습 역시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 4개 국가가 합쳐진 연합왕국(United Kingdom)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영국이 유럽을 대표하는 다인종, 다민족 국가라는 표현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어느 나라에나 얼마간은 존재하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multi-cultural)적 양상이 영국에 나타난 것은 대략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쟁 후 재건을 위해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에서 충당하는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질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정부는 가능한한 유럽이민자의 유입을 유도하려 했으나 예상과 달리 서인도제도와 인도대륙 등지에서 많은 수의 이민자가 유입되었다. 미처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도 못했고 또한 이 국가들 역시 영연방국가의 시민이므로 별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상론에 매달려 있던 영국정부는 초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정희라, 2006). 이후 흑인과 아시아인, 기독교와 이슬람교, 힌두교까지 혼재되는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자 영국인들은 당황하게 되었고 1950년대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은 "영국은 잡동사니 사회(magpie society)가 될 것이다"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처칠의 언급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다문화문제에 관한 영국정부의 초기 인식은 다양성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1960년대 초반까지 다문화 관련 정책의 기조는 동화주의를 기반으로 삼게 된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정책이 유럽계 이민자들에 대한 영국인과의 결혼 장려정책이었다. 이민자들이 결혼을 통해 영국인으로 완벽하게 동화될 수 있으리란 기대를 담고 있는 정책이었으나 민족, 문화, 종교가 다른 이민자들이 영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꺼려했고 영국인들 역시 혈통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민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여 무시못할 사회적 블럭을 형성하면서 이제 동화주의를 통해 이들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 노동당의 집권기부터 영국정부의 다문화정책은 크게 선회하여 '용광로가 아닌 다양한 문화가 동반되는 동등한 기회'를 강조하게 된다(정희라, 2006: 6). 이러한 선회는 과거 영국이 식민지 지배를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문화를 인정하는 방식의 간접적인 통치를 하는 자유주의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지적도 있다(Joppke, 1999).

이러한 선회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슈어스타트(sure start) 프로그램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신단계에서 만14세에 이르는 아동과 가족들에게 광범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다문화 구성원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이다. 또한 2004년 영국의 교육 및 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 백인학교에서의 소수인종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이해"(Aiming High:Understanding the Educational Needs of Minority Ethnic Pupils in mainly White Schools)라는 다문화교육 가이드 북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이 책에서는 평등, 다양성, 소속감과 결속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의 지침과 방법, 참고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의 평화적 공존과 인종 간의 격차 및 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문화 관련 국가전담기구인 "다민족 영국의 미래"(Future of Multi-Ethnic Britain)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오던 영국은 2005년 발생한 런던테러사건을 통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전문테러조직이 아닌 영국사회에 정착한 이민2세 무슬림 청년들에 의해 저질러진 끔찍한 테러사건으로 인해 과연 이들에게 제공되어온 다문화교육의 방향이나 방법이 타당한 것이었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이후 다문화교육의 정책적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Ⅲ. 호주 : 백호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호주는 1788년 영국의 식민지이자 죄수의 유형지로 1867년까지 약 15만명 이상의 죄수들이 유배되어 오고 여기에 1830년대 이후 정부 보조를 받은 자유이민자들이 건너오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이른바 백호주의(the White Austrailian Policy)를 내세워 선주민이었던 어보리진(aborigins)에 대한 반인권적 탄압과 배제정책을 펼쳤고 중국 이민이 증가하자 1901년부터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 Act)를 통해 유색인종 이민자들을 규제하였다(이용승, 2004: 34).

제2차 세계대전은 호주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전쟁 이후 호주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의 차원에서 개방적 이민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백호주의에 대한 집착은 여전하여 1980년대까지도 영국계 이민자들에게는 선박운임과 정착보조비를 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계 이민자들의 수는 줄어들고 동부유럽, 아시아계 이

제2차 세계대전은 호주에도 큰 영향을 미쳐 전쟁 이후 호주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의 차원에서 개방적 이민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백호주의에 대한 집착은 여전하여 1980년대까지도 영국계 이민자들에게는 선박운임과 정착보조비를 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다문화정책은 연방정부의 이민 - 다문화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Ethnic)에서 총괄하고 있었는데 '인종차별은 절대 안돼!' (Racism Noway!)' 와 같은 인종차별 철폐 프로그램과 함께 정착지원 서비스, 언어지원 서비스, 호주 시민성 정책, 문화적 다양성 증진정책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성인 이민자 영어교육, 무료 통번역 서비스 등이 크게 확대되었다.

민자들이 증가하면서 동화주의적 정책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여기에 영국의 경제적 영향력 약화와 아시아권의 성장, 지역적으로 근접한 아시아지역과의 교류확대는 결국 다문화정책의 수정을 불러오게 되었다.

1973년 이민장관인 Grassby가 연설을 통해 백호주의 동화정책의 종말과 다문화주의로의 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후 호주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79년 의회는 호주다문화위원회(AIMA)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고 1989년에는 정부차원에서 '다문화 호주를 위한 국가아젠다' 를 발표했으며 1999년에는 새로운 세기를 향한 호주의 다문화주의가 정부정책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이러한 다문화적 변화의 흐름을 집대성하여 2006년까지의 정책비전을 제시한 '다문화호주 : 다양성을 통한 통합' 도 2003년 발표되었다.

다문화정책은 연방정부의 이민 - 다문화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Ethnic)에서 총괄하고 있었는데 '인종차별은 절대 안돼! (Racism Noway!)' 와 같은 인종차별 철폐 프로그램과 함께 정착지원 서비스, 언어지원 서비스, 호주 시민성 정책, 문화적 다양성 증진정책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성인 이민자 영어교육, 무료 통번역 서비스 등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연방정부의 정책변화에 발맞추어 각 주정부에서도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과 정책 등을 펼치기 시작했다. 호주 수도 자치령의 '다문화교육과정 지원법' (1997), 퀸즈랜드주의 '다문화적 퀸즈랜드 : 교육과 예술에 있어 다름의 세계 만들기' (2004), 빅토리아주의 '학교 내에서의 문화적, 언어적 다원성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문화적 다원성과 공동체 관계 정책 : 학교정책에서의 다문화적 교육' 등이 이러한 법제 변화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이태주, 2007:42). 이민 학생들의 모국어 유지와 발달을 돕는 한편 호주 학생들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목적으로 실시된 '영어 이외의 언어교육' (Language Other Than English, LOTE)프로그램은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되었고 이를 위한 교사교육도 강화되었다. 또한 호주 정부 해외원조기구(AusAid)에서는 지구촌 교육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만들어 학생과 교사를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들을 학교수준별로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Living in Harmony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다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1999년 이후 388개의 지역사회 프로젝트, 49개의 협력사업, 9개의 주요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온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앞서 언급된 '인종차별 절대 안돼!' 도 이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매년 3월 21일을 Harmony Day로 지정하고 지역 다문화 커뮤니티와 학교를 통해 다양한 다문화 행사를 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수민족 공동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 공연, 강연 등의 행사를 열어 다양한 시민들이 응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역시 Living in Harmony 프로젝트의 일부로 실시되고 있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정

영국과 호주는 모두 자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문화정책을 펼쳐왔으나 이들의 경험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정책에 여러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두 나라의 순환과정의 다음 단계는 조만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부처와 지역단체, 대학 등이 연계하여 호주적 가치의 함양, 상호존중과 사회참여를 지역적, 국가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정부 주도형 다문화국가로 일컬어지던 호주는 2007년 하워드 내각이 들어선 이후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하워드 정부는 호주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주장하며 정책의 방향을 동화주의적 성격으로 변화시켰다. 이민자들에 대한 영어와 호주역사 시험을 강화하고 다문화교육의 주관부서 이름에서 '다문화' 라는 말을 빼버리고 '시민' 이라는 말을 포함시켜 '이민 - 시민부' 로 개칭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Ⅳ. 생각해볼 점

영국과 호주는 모두 자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문화정책을 펼쳐왔으나 이들의 경험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정책에 여러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확인되는 것은 이른바 '다문화정책의 순환' 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을 만큼 이 나라의 다문화정책 역사가 비슷한 과정을 밟아왔다는 점이다. '전쟁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필요 - 이에 부응한 이민의 증가 - 초기의 동화주의적 정책-이민의 확대 - 다문화주의로의 선회 및 정책 확대' 로 요약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 역시 겪고 있으며,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압축적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는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스럽고 급박하게 이러한 과정들을 밟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자면 이 두 나라의 순환과정의 다음 단계는 조만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 마지막 단계는 런던 테러로 인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문이었고 호주는 동화주의로의 회귀였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경제 상황이라든가 정치역학에 원인을 두는 외생적 분석도 가능하고 다문화정책 자체가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실시되지 못했다는 내생적 요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문화주의로의 전환이 구성원 전반의 동의와 의식변화를 통한 귀결로써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인력 수요, 경제적 교류, 현실적인 이민의 증가 등에 떠밀려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동의 측면이 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호주의 사례에서 보다 극명해진다. 정부 주도로 시작된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백호주의의 폐기, 다문화정책 주체, 법제화, 확산과 운영 전반에 정부가 강하게 영향력을 미쳤으며 국민들의 동의수준이 충분히 따르지 못한 상황에서 역차별 문제, 호주의 정체성 약화 등 반대 의제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정부교체를 통해 정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는 사회는 '우리' 라는 의식으로 단단하게 뭉친 '하나된 사회' 인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 느슨하게 공존하는 '따로 다같이' 사는 사회인가.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희생과 손해를 어느 만큼이나 감수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일까? 앞으로의 다문화교육은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던지고 다문화적 공존의 방법을 널리 알리며 그 가치를 체계화하도록 하여 '공존의 비용' 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시민적 자세를 갖도록 하는 교육이라야 할 것이다.

책방향이 바뀌자 시작될 때 만큼이나 급속하게 다문화정책들이 퇴조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행히도 이러한 문제상황의 조건들은 우리의 현재에도 대부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주의는 1990년 이후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한 이주민 노동자의 증가, 90년대 중후반 이후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떠밀려 급하게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현재와 같은 다문화정책 및 다문화교육의 팽창을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의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그 자체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큰 정책적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부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이 양적 확대를 통한 기반조성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내실을 다지고 정책의 지향점과 그 가치관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는 사회는 '우리' 라는 의식으로 단단하게 뭉친 '하나된 사회' 인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 느슨하게 공존하는 '따로 다같이' 사는 사회인가.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희생과 손해를 어느 만큼이나 감수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일까? 앞으로의 다문화교육은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던지고 다문화적 공존의 방법을 널리 알리며 그 가치를 체계화하도록 하여 '공존의 비용' 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시민적 자세를 갖도록 하는 교육이라야 할 것이다. 아주 힘들고 복잡하며 오랜 시간이 걸릴 작업이다. 하지만 그런 각고의 노력이 없이 어느 날 걸린 '다문화' 라는 빛나는 간판은 한 번의 테러, 한 번의 선거만으로도 쉽게 무너져내릴 수 있다는 것, 영국과 호주의 사례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사실을 계시처럼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이용승(2004). 호주 다문화주의의 역진, 민족연구, pp.27-49
이태주(2007). 다민족, 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갈등 양상과 극복과정-호주와 일본의 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외.
정희라(2006). 영국의 자유방임식 다문화주의-영국적 전통과 이민자 통합, 이화사학연구, 이화사학연구소, 35권, pp.1-27
Joppke, C.(1999). Immigration and the Nation-State: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Great Brit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핀란드는 어떻게 우수 교원을 양성하나

글_ 김기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 교원양성기관평가운영팀장

핀란드 교육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이 있지만, 교원의 역량이 우수하다는 점은 항상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지적되곤 한다. 핀란드는 어떻게 역량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게 되었는지, 아니 어떻게 교원의 역량을 우수하게 만들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Ⅰ. 핀란드의 교육이 주목을 받는 이유

핀란드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모른다. 인구 530만 명의 작은 나라가 '교육' 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목을 받게 된 일차적인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에서 지속적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 뿐이 아니다. 핀란드 교육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다른 특징들이 있다. 학교들 간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차이가 세계에서 가장 적다. 평등한 교육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시험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 성적 경쟁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이 없다. 학교에서 다 배운다. 그런데도 1~9학년 학생들의 연간 총 수업시간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적다. 매우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서 핀란드 교육이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핀란드 교육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이 있지만, 교원의 역량이 우수하다는 점은 항상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지적되곤 한다. 핀란드는 어떻게 역량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게 되었는지, 아니 어떻게 교원의 역량을 우수하게 만들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핀란드의 교사들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학교와 자신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기 스타일의 수업방법을 전개할 수 있다. 혁신적인 학습지도방법들을 서로에게 전파할 수 있는 교사 네트워크도 활성화되어 있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교육전문가로 인정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행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Ⅱ. 핀란드의 교원정책

지난 10월 미국 맥킨지(McKinsey & Company)에서 싱가포르, 핀란드, 한국의 교원정책을 비교한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다. 교원 교육 대상자 선발, 교원 양성 교육 비용 등 9가지 전략에 대한 비교자료이다. 핀란드와 한국의 교원정책은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형태로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세 가지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핀란드에서는 교원양성 교육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에 한국은 개인이 부담한다는 점, 교원의 보수수준이 핀란드에 비해 한국이 높다는 점, 한국은 교원의 능력을 비교하여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나 핀란드는 교원을 상호 경쟁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맥킨지 분석에는 빠져 있지만, 한국에서는 교원평가를 시행한다는 점이 또 하나의 차이점으로 추가될 수 있다.

핀란드의 교사들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학교와 자신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기 스타일의 수업방법을 전개할 수 있다. 혁신적인 학습지도방법들을 서로에게 전파할 수 있는 교사 네트워크도 활성화되어 있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교육전문가로 인정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최선의 교육을 행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교육당국[1]에서도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고 있다. 신뢰한다는 것은 학교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줄 안다는 것을 교육당국이 믿어주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교육당국이 처음부터 교사를 신뢰한 것은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교육개혁이 진행되던 1970년대만 해도 학교는 교육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교사

〈표 1〉 최우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국제비교(McKinsey & Company)

최우수 교사 확보 전략	싱가포르	핀란드	한국
교원양성 교육대상자 선발 경쟁	○	○	○
정부가 교원양성교육의 비용 부담	○	○	
정부가 교원의 수요와 공급 조절	○	○	○
전문적인 교직수행 환경	○	○	○
교원에게 많은 봉급 지급	○		○
교육을 존중하는 문화	○	○	○
평생직업으로서의 교직	○	○	○
많은 승진기회	○		
능력에 따른 성과급 지급	○		○

1) 교육 당국이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국가교육청(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등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교육정책과 법률적인 틀과 교육재정을 책임지고 있다. 국가교육청은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육평가를 주관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에서 교직은 매우 인기 있는 직종이다. 교원의 봉급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다. 봉급 수준은 OECD 국가의 평균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봉급보다는 교직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으로 인식되고 있고, 교사의 업무가 자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직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대학의 교원양성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도 많다. 그러나 실제로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

들도 각종 규칙과 지시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었다. 교육당국이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의 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이다. 1990년대 초에는 관료주의적 중앙행정에서 분권적 지방자치로 크게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 때는 핀란드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당하면서 공공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때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권한이 강화되고 학교의 자율성도 크게 증가되었다. 1994년에는 국가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학교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고 고등학교를 무학년제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를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로 전환하고, 교사들 간의 학습 네트워크를 촉진하였다. 이런 일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의욕적인 교사들, 그리고 학교관리능력과 민주적 리더십을 잘 갖춘 교장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Ⅲ. 핀란드의 교원양성교육

1. 교원양성과정 학생의 선발

핀란드에서 교직은 매우 인기 있는 직종이다. 교원의 봉급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다. 봉급 수준은 OECD 국가의 평균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봉급보다는 교직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으로 인식되고 있고, 교사의 업무가 자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직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대학의 교원양성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도 많다. 그러나 실제로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어, 2007년 초등학교 학급담임과정 입시에는 핀란드 전역에서 약 8,000명이 응시했으나, 1차 공통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약 3,000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 3,000명이 각자 지망하는 대학에서 시험을 치른다. 헬싱키대학(University of Helsinki)의 경우, 초등학교 학급 (담임)교사 과정에 1,300명이 지원하여 필기시험에서 300명이 합격하였고, 개인면접과 집단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격한 이는 100명뿐이었다. 2008년에는 1,258명이 지원하여 123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위바스낄라대학(University of Jyvaskyla)의 경우, 2008 - 2009학년도에 4,307명이 지원하여 276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지난 10년 간 대학 교원양성과정의 평균 입학률은 12~14% 정도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대학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핀란드 전국의 대학들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원양성과정의 학생선발과정에 대해, 헬싱키대학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한 교직 지망자들은 모두 전국적인 공통 필기시험을 치른다. 이 시험에서는 교육학, 발달심리학 등 5가지 전문서적을 4주 동안 읽고, 교육 전반에 관한 내용과 과제도서에 관한 에세이를 작성한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각자 희망하는 대학에서 대학별 시험을 치른다. 헬싱키대학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인면접과 집단토론을 실시한다. 시험관은 개인면접과 집단토론에서 각 3명씩이다. 개인면접에서는 응시자의 생각과 교육관 등을 평가

핀란드의 교원양성교육의 핵심은 연구기반 접근(research-based approach)을 취한다는 데에 있다. 연구기반 접근이란 반성적이고 탐구지향적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핀란드의 학교현장에서는 교사 자신이 교육과정과 수업방법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수 -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이 이런 연구기반 접근이 교사에게 매우 적합하다.

한다. 집단토론에서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 타인과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 타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력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필기시험 점수와 6명의 시험관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2. 교원교육의 핵심

핀란드의 교원양성교육의 핵심은 연구기반 접근(research-based approach)을 취한다는 데에 있다. 연구기반 접근이란 반성적이고 탐구지향적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핀란드의 학교현장에서는 교사 자신이 교육과정과 수업방법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수 -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이 이런 연구기반 접근이 교사에게 매우 적합하다.

헬싱키대학에서는 교원교육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연구자료를 읽고 에세이를 쓰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각종 연구방법에 익숙해지게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구에 기반을 둔 사고를 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독자적인 교육이론이나 수업방법을 개발하게 된다. 헬싱키대학의 리나 크록포스(Leena Krokfors) 교수는 연구기반 교사교육의 특징을 다음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연구 프로그램이 구조화되어 있다. 둘째, 모든 수업은 연구에 토대를 둔다. 셋째, 학생들이 교육학적인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변론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정당화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조직한다. 넷째, 학생들은 학문적인 연구방법을 배운다. 그들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적 연구방법들을 익힌다. 수업이 연구에 토대를 두게 되면, 교사는 자신이 연구한 것을 가르치게 되고, 최신 연구에서 잘 다듬어진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수업방법을 만들어내게 된다.

핀란드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끝날 무렵에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석사학위 논문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논문작성을 통해 연구방법을 익히고, 연구하는 동안에 실용적이거나 이론적인 뭔가를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다.

헬싱키대학에서는 2002년에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능력을 길러주고자 했다. 첫째 높은 수준의 교과내용의 지식이다. 이와 함께 교육학 지식, 지식의 성격에 관한 지식도 갖추어 주고자 했다. 둘째, 연구방법과 같은 학문적인 기술이다. 이것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이다. 셋째, 의사소통 기술과 같은 사회적 기술이다. 교사는 다른 교사들과 협력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기관으로서의 학교에 관한 지식이다. 학교는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써, 많은 파트너와 이해관계자들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도덕적 지식과 기술이다. 교사는 수업전문가로서 도덕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여섯째, 수업전

핀란드에서 초 · 중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교과 교사(subject teacher)는 기초교육과정의 7~9학년, 후기 중등학교, 직업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한다. 교과 교사는 보통 하나의 전공과목과 하나의 부전공과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수학 교사가 물리학을 부전공하는 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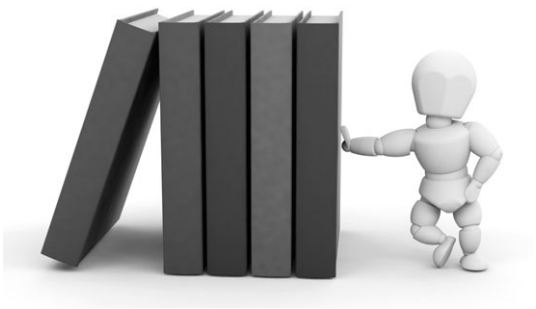
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교사는 수업 전문가로서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3. 교원교육과정

핀란드에서 초 · 중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교과 교사(subject teacher)는 기초교육과정의 7~9학년, 후기 중등학교, 직업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한다. 교과 교사는 보통 하나의 전공과목과 하나의 부전공과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수학 교사가 물리학을 부전공하는 식이다.

헬싱키대학에서, 교과 교사 양성과정은 학사과정(3년)에서 180학점을 이수하고, 이어지는 석사과정(2년)에서 120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1학점은 26시간이다. 교과 교사는 주전공 과목, 부전공 과목, 교육학 연구, 의사소통과 언어 연구를 공부해야 한다. 주전공 과목에서는 학사과정에서 대개 85학점 정도 이수하고 교과내용에 대한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이어서 교육실습 20학점을 취득해야 하는데 실습기간은 4개월 정도이다. 그리고 석사과정의 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논문을 작성한다. 논문 주제는 교과 내용학 또는 교육학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부전공 과목은 교육실습을 포함하여 60학점이다. 교육학 연구는 교육실습과 교육학 논문을 포함하여 60학점이다. 교육학 석사논문은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의사소통과 언어연구는 교육실습을 포함하여 20학점 정도이다. 대개 학부 1~2학년에서 주전공과 부전공 공부를 시작하고, 2학년에서 교육학 공부를 조금 시작한다. 3학년이 되면 교육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교사 교육은 석사수준이며 의사, 변호사와 거의 같은 학력수준이다. 교사 교육과정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교사자격으로 인정한다. 교사자격증을 별도로 발급하지는 않는다.

초등학교 학급 교사(class teacher)도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교과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사과정(3년)에서 180학점을 이수하고, 이어지는 석사과정(2년)에서 120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전공 교과교육, 부전공(subsidiary) 교과 연구, 제2 부전공(minor) 교과 연구, 그리



핀란드의 교원양성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실습을 매우 강화하고 있다. 멘토 자격을 갖춘 교사가 교육실습생을 맡아서 지도한다. 교육실습 시간은 학급 교사의 경우는 312시간 이상이고 교과 교사의 경우는 500시간 이상이다. 실습 도중에 실패한 것이 있으면 대학에 가져가서 검토한 후 다시 학교현장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한다.

고 의사소통과 언어 연구를 공부해야 한다. 전공 교과교육은 학사논문을 포함하여 125학점 정도 이수하고, 교육실습 20학점을 취득한 후, 석사과정의 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논문을 작성한다. 석사학위 논문은 대개 교육학이나 교육심리학 등을 주제로 작성한다. 부전공(subsidiary) 교과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칠 과목들과 교육실습을 포함하여 60학점을 이수하는데, 연구중심으로 운영한다. 제2 부전공(minor) 교과 연구는 교육실습을 포함하여 60학점을 이수하는데, 실습중심으로 운영한다. 제2 부전공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나 1과목만 이수할 수도 있다. 보통 25학점을 이수하는데, 60학점을 이수하면 7~9학년에서 교과를 가르칠 수도 있다. 의사소통 및 언어연구는 약간의 실습을 포함하여 25학점 정도 이수한다.

유치원 교사 교육은 학사학위과정으로 되어 있다. 교육학 연구 126학점, 부전공 및 선택과목 34학점, 의사소통과 언어연구 20학점 등 총 180학점을 이수한다.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리더십, 행정능력, 그리고 유아교육분야의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한다.

특수교육 교사 또는 특수교육학급 교사도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핀란드에서 특수교육 교사는 장애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라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의 주전공 과목을 160학점 이수하고, 부전공 과목을 115학점 이수해야 한다. 부전공 과목은 교사를 위한 교수법 연구 60학점, 다학문적 연구 모듈 60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 및 언어 연구 2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특수교육 학급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다른 방법도 있다. 그것은 먼저 학급 교사 프로그램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이어서 특수교육 교사 연구 과정을 따로 공부하는 것이다.

4. 교육실습

핀란드의 교원양성교육은 이론과 실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실습을 매우 강화하고 있다. 멘토 자격을 갖춘 교사가 교육실습생을 맡아서 지도한다. 교육실습시간은 학급 교사의 경우는 312시간 이상이고 교과 교사의 경우는 500시간 이상이다. 실습 도중에 실패한 것이 있으면 대학에 가져가서 검토한 후 다시 학교현장으로 돌아오

핀란드 교원양성교육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기반 접근을 통해 교원들의 교육에 관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석사학위 수준의 교원을 양성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충분한 교육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기를 반복한다.

초등의 학급 교사 양성과정의 교육실습은 기초실습 7주, 응용실습 5주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 교육실습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합격, 불합격, 훈련을 요함의 3종류이다. 총 12주의 교육실습기간이 끝나도 좀 더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1주 내지 2주 단위로 실습기간을 연장한다.

헬싱키대학 부속 비키노르마리학교에서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학생 200명을 동시에 받아들인다. 선발시험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실습을 희망하는 동기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서류심사를 한다. 2단계에서는 집단토론을 한다. 실습희망자 5명 정도로 구성된 집단에 주제를 주고 토론을 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리더십, 협조성, 대화 유도 능력 등을 확인한다. 3단계에서는 개별면접을 실시하고, 교직전문분야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른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학생은 교직적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런 선발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를 받아 줄 만한 학교를 안내해 준다.

교과 교사를 위한 실습은 500시간 이상이다. 기본실습, 응용실습, 고급실습의 3단계로 나누어 총 19주 동안 실시한다. 1단계에서는 8주에 걸쳐 수업의 기본기법을 배운다. 기준 실습시간은 185.5시간이다. 2단계에서는 3주 동안 담당구역의 학교에 나가서 다양한 환경에 처한 학교현장을 체험한다. 기준 실습시간은 130시간이다. 3단계에서는 8주 동안 최초의 실습학교로 돌아가서 교육실습을 마무리한다. 기준 실습시간은 213시간이다. 교육실습은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이어서 해도 되고, 간격을 두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도 된다.

Ⅳ. 맺음말

핀란드 교원양성교육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기반 접근을 통해 교원들의 교육에 관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수업방법과 학생지도방법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고 개선하는 성찰적인 교사(reflective teacher)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석사학위 수준의 교원을 양성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학사과정에서 석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전공과목과 교육학을 모두 이수하게 하고, 부전공 과목도 이수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학교의 다양한 교육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한다. 셋째, 충분한 교육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교육실습생 선발체제를 통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시키고, 2~3회의 실습기회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시킨다. 또한 실습생을 지도하는 멘토 교사를 두어 실습생을 철저히 지도하도록 한다. 한국의 교원양성교육을 개선하는 데 충분히 참조할 가치가 있다.

자기주도학습 지침서 –「내 공부의 내비게이션! 자기주도학습」 발간 취지 및 내용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연구실장

Ⅰ. 자기주도학습 지침서 발간 취지 및 배경

평생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은 지적호기심과 탐구력이다. 누가 평생을 쫓아다니며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능력이 있어야 평생학습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21세기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선별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으로서 초 · 중 · 고 교육 단계에서부터 몸에 익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하는 등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함양을 주요한 교육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은 자신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생보다는 학원이나 과외지도와 같이 타율적인 공부에 길들여진 학생들이 많은데, 이러한 학생들은 당장의 학업성적은 좋을지 몰라도 대학이나 미래사회에서의 성취를 장담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21세기 미래사회는 글로벌시대로서 이러한 시대에서는 지식의 소비자가 아닌 지식의 생산자로서의 인재를 요구한다. 지식생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습자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이에 맞추어 교육현장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을 반영하여 자기주도적 개별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2011학년도부터 특목고(일부 자율형 사립고 등 포함) 학생 선발방식으로 도입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다. 그동안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심이 되는 고등학교 학생 선발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

『내 공부의 내비게이션! 자기주도학습』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계발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담았다. 이 책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이란 단순히 '학생 혼자서 잘 하는 것' 이 아니라 교사와 부모의 도움이 적절히 더해질 때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실이다. 특목고 입시준비를 위해 스펙을 쌓아야 하고, 그러다보니 사교육이 만연하게 되었으며, 정상적인 중학교 교과과정만으로는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졌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고등학교 입학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중학교 내신성적과 학생의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만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함으로써 중학교 학교교육이 고등학교 진학의 중심에 설 수 있고, 사교육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충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도입된 자기주도학습 전형이 학교현장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자기주도학습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에 발간될 자기주도학습 지침서인 『내 공부의 내비게이션! 자기주도학습』은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통해 교육현장에 자기주도학습 문화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서울시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의 위탁과제로 수임받아 기획 · 제작되었다.

Ⅱ. 자기주도학습 지침서의 내용

『내 공부의 내비게이션! 자기주도학습』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계발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담았다. 이 책에서는 자기주도학습이란 단순히 '학생 혼자서 잘 하는 것' 이 아니라 교사와 부모의 도움이 적절히 더해질 때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학생, 학부모, 교사가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한 나름의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글을 구성하였다.

『내 공부의 내비게이션 ! 자기주도학습』은 전체 5장으로 각 장에서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장 '글로벌시대의 인재와 자기주도학습 전형' 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시행배경과 선발방법 및 절차, 전형준비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2011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외고 · 국제고 등의 입시에서 사교육 유발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시험 금지, 경시대회, 인증 시험 등의 선행학습 요소를 배제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독서 기록, 학습계획 등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도입한 제도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였다.

2장 '자기주도학습, 전격 해부하기' 에서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자기주도학습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자기주도학습을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학습과정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

'자기주도학습, 교사 길라잡이' 에서는 학생을 자기주도학습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사가 해야 할 역할과 학습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자기주도학습, 학부모 길라잡이' 에서는 자녀를 자기주도학습자로 키우기 위해 학부모가 해야 할 역할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는 학습활동' 이라 정의하고 자기주도학습자는 학습의욕으로서의 동기, 학습전략으로서의 인지, 학습실천으로서의 행동 세 가지 차원이 적절히 기능해야 성공적인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론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3장 '자기주도학습자로 성장하기' 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자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구체적인 활용전략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성공적인 자기주도 학습자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와 방법으로 첫째, 자신의 꿈과 목표 설정하기, 둘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셋째, 기본적인 학습방법 익히기, 넷째, 학교생활에 최선 다하기, 다섯째, 경험의 토양 쌓기, 여섯째, 다양한 독서체험 하기를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습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활용하여 학습을 실천하도록 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목표 설정하기' 에서는 학생의 꿈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여 학생 자신이 지향하는 진로계획을 세워보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단기적인 행동 과제들을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다.

4장 '자기주도학습, 교사 길라잡이' 에서는 학생을 자기주도학습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사가 해야 할 역할과 학습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의욕을 극대화시키는 학습동기자, 학습과정을 인도하는 조력자, 학습실천을 이끄는 안내자로서 학생 스스로가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돕는 촉진자이다. 교사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강조하고, 다양한 자료와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학습전략에 대해 시범을 보이며 학생이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동학습, 체험학습, 프로젝트중심학습 등의 수업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지도방법도 함께 소개하였다.

5장 '자기주도학습, 학부모 길라잡이' 에서는 자녀를 자기주도학습자로 키우기 위해 학부모가 해야 할 역할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녀를 자기주도학습자로 키우기 위해 자녀에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자녀의 잠재력을 믿고 방향을 제시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등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구체적인 지도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꿈과 목표를 설정하기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지원이 더해질 때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위해 부모는 자녀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점검하고, 다양한 검사들을 실시하여 자녀의 적성을 파악하는 일은 물론, 진로계획을 세우는 데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Ⅲ. 『내 공부의 내비게이션! 자기주도학습』 지침서의 활용

자기주도학습 지침서 『내 공부의 내비게이션 ! 자기주도학습』은 학교현장의 초 · 중학교 학생,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단행본 책자로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문화가 교육현장에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인생의 꿈 설계하기 등을 통해 학생 자신을 이해하여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학습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전략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데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지원이 더해질 때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는 학습의 주도권은 학생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학생 스스로가 학습의욕을 유발할 수 있도록 꿈과 목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며, 학습계획을 세워 실행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에게는 학생과 자녀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학생이 가진 잠재력 계발을 통해 글로벌시대에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슈와 전망

➡ Educational Development

학교장의 리더십이 선호 · 기피학교 가른다

글_ **강연흥**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장학관

Ⅰ. 들어가며

아이를 둔 모든 학부모들은 내 아이를 보내는 학교가 좋은 학교이길 바란다. 좋은 학교를 찾아 값 비싼 주거비를 부담하며 소위 명문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찾아 지방이나 시골로 집을 옮기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초등학교급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니며 미래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학교를 떠올릴 수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어주는 학교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한다.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고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당장 눈앞의 목표는 좋은 대학을 가는데 맞춰져 있으며 이를 위해 사교육비를 최대한 투자하며 불안을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에게 인기있는 학교경영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성적을 내게 하고 좋은 고교나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장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선호기준이 학교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학교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게 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유의 능력을 키우며, 협동적 공간에서 인성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찾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들은

안타깝게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대평가의 적대적 경쟁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학교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관념과 현실의 경계 속에 고민하는 학부모들도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쨌든 어떤 기준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설정된 학교의 목표를 충족시켜가는 것은 학교구성원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사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행정직원들, 의사결정의 중요한 주체가 되어가고 있는 학부모 등이 학교의 문화를 만들고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다. 구성원들이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잘 이루는 학교는 많은 성과를 낼 것이고, 서로 갈등하며 신뢰하지 않는 학교는 교육력을 높이지 못하여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모든 공동체는 구성원 전체의 역할이 모아져서 역량을 만들어가지만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로, 아니 특히 학교는 학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기업이나 공무원조직처럼 위계질서가 분명한 상명하달의 특성보다는 수평적 문화가 강한 학교조직의 경우는 민주적으로 의사를 수렴하고 조율하며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학교 뒤에는 우수한 교장이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특정 학교를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요인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장의 역량이 가장 큰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Ⅱ. 좋은 학교 뒤에는 우수한 교장이 있다

교장이 새로 바뀌고 나서 좋지 않은 학교가 아주 우수한 학교로, 또는 우수했던 학교가 갑자기 좋지 않은 학교로 변화된 사례는 많이 있다. 실제로 학교장의 리더십이 학교의 선호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관련 연구사례와 실례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와 교장공모제가 학교장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떤 한 연구에서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를 지망한 이유에 대하여 학부모들에게 질문한 결과, 학교장의 리더십,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 교사의 교과지도 실력, 대학진학 성적 등이 선호학교와 기피학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고등학교의 기본여건이나 지원이 비슷하더라도 교장의 리더십이나 교직원들의 자질과 자세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교장의 리더십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혁신에 있어서 교사들이 수업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교직과 학생들에게 헌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사 등 학교구성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도록 유도하는 데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지만 학교장의 리더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974년부터 실시되어온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고교선택권제를 도입하였다. 처음 실시되었던 고교선택권제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다. 강남지역과 소위 명문학교들에게 학생들의 선택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남부지역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고(교장 오세창)가 서울시 전체 일반고교 1백 96개 가운데 17:1로 최고 경쟁 지원율을 기록하였다. 2009년에 개교한 이 학교에 왜 많

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였을까?

오세창 신도림고 교장은 입학식 날 학생들 모두에게 스펜서 존슨이 저술한 인생철학서 〈선물〉을 한권씩 나누어 주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학생들은 크게 감동했다고 한다. 오세창 교장은 또 보통 신생 학교의 경우 '발전기금' 이라는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찬조금을 받는 것이 관례였지만 "신도림고는 학부모들에게 한 푼도 찬조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사교육이 없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였다.

지난 1년간 학교운영 면에서도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연구팀' 을 만들었으며, 교과교실제와 과학중점학교 등을 도입해 교과를 전문화하였고, 방과 후 학교를 차별화하여 과목별로 실력 있는 외부 전문강사들을 영입했다. 그리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생활지도는 엄격하게 했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졌음을 다양한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학교장의 리더십과 경영 마인드가 개교 1년 밖에 안 된 신도림고를 '가고 싶은 학교' 로 만든 비결이 아닐까 생각한다.

Ⅲ. 학교장의 경영능력 평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장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였으며 올해에도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에 실시된 평가항목으로는 교장의 경영 성과, 학력증진 성과, 활동 성과, 교사 · 학부모 만족도, 청렴도 및 자질 등이었다. 학교에서 교장의 권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만큼, 교장의 경영능력 평가는 교장들의 책무성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0년 2학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교장공모제를 100%로 확대 실시하였다. 물론 전체를 공모로 도입하는 것은 승진 대상자들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교장공모제의 도입이 학교운영의 자율성, 책무성, 민주성을 제고하고 학교혁신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매우 크다.

교장으로 임용될 때 해당 학교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학기가 임박해서야 순위에 따라 발령을 받아 나가는 경우보다는, 교장공모제 과정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뽑게 되면 공모에 응하는 교장들은 미리부터 지원한 학교에 대한 경영마인드와 리더십을 요구받게 되며, 또한 학교에 대하여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그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고민하게 됨으로써 그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발전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하겠다.

훌륭한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교사들의 애로사항과 복지사항들을 미리 파악하여 해결해주고, 도덕적으로 귀감이 되고, 금전적으로 깨끗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행하는 것 등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우수한 교장의 첫 번째 덕목은 교사의 열정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겠다. 조직을 일깨워 교사들이 열정과 헌신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십, 이러한 리더십이 바로 학교를 바로 서게 하고 기피학교에서 선호학교로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장의 경영능력은 주로 4가지 영역의 평가지표 안

훌륭한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교사들의 애로사항과 복지사항들을 미리 파악하여 해결해주고, 도덕적으로 귀감이 되고, 금전적으로 깨끗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행하는 것 등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에서 이뤄진다. 학교 경영성과평가, 만족도 조사, 상훈 및 자질 등의 영역이다. 학교 경영성과 평가는 리더십과 학교경영능력의 분야이며, 학교 교육성과 평가는 내실있는 학습부진학생 지도와 사교육비 경감, 바른 인성 함양, 소외학생 지도 등이 해당되며, 만족도 조사 영역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만족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개인이나 기관의 상훈 및 자질의 영역들을 평가하게 된다.

학교 경영성과 평가는, 학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세우고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하며 교육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책무를 본다. 여기서의 학교 경영성과는 학교의 이러한 본질적인 활동 및 기능을 학교장이 전체적으로 결정하고 조정하며 이끌어 감으로써 이루어 낸 성과를 의미하며, 그 성과는 궁극적으로 리더십 및 학교 경영능력 평가 결과로 발현된다.

학생 교육성과 평가는 학교 교육의 학생 교육의 성과에 대하여 책무를 져야 함을 평가한다. 이러한 학교의 책무달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는 내실있는 학습부진아 지도, 사교육비 경감, 바른 인성 함양, 소외학생 지도이다. 여기서의 성과는 학교장이 학교 교육의 투입 및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낸 결실을 의미하며, 그 성과는 궁극적으로 학습부진 학생 감소, 사교육비 경감,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 학교부적응아, 다문화, 새터민 등 소외학생에 대한 지도성과, 취업률 등으로 발현된다.

만족도 조사는 학교 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질에 달려 있음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교원능력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또한, 학교의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과 성과에 대하여 학부모와 의사소통을 하고 유대를 강화할 책무가 있다. 여기서의 만족도는 이러한 학교장의 총체적인 학교경영에 대한 교육활동 주체와 수요자의 만족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사 및 학부모의 만족도 등으로 발현된다.

만족도 조사는 학교장이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갖추고, 청렴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Ⅳ. 학교장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

이와 같은 평가영역에서 구체적인 평정 기준과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함으로써 객관성과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평가자의 구성이나 평가단의 평가오차를 줄일 수 있는 과학적 연수를 통해 평가

의 수준을 높여갈 경우 학교장의 학교경영능력 제고를 통한 학교 교육력 향상은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양질의 교육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지표를 가지고 학교구성원과 함께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의 리더십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교장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첫째, 소통하는 리더십이다. 학교장은 학교 내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적인 의사결정은 구성원들에게 정보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동시에 협동과 팀워크를 가져온다. 교장과 구성원들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협력적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둘째, 배려하는 리더십이다. 학교장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어렵고 힘든 사항들을 파악하여 배려하는 리더십이야 말로 학교에 대한 애착과 애교심을 키워줄 것이다. 또한 교장이 권위와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교사들에게 다가감으로써 교사들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학교조직을 보다 더 굳건하게 할 것이다.

셋째, 신뢰하는 리더십을 들 수 있다. 교장은 구성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믿어주며, 긍정적인 기대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학교장의 신뢰하는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헌신성과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며 서로 간에 목표를 일치시켜 학교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넷째는, 봉사하는 리더십이다. 단위학교에 교육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그 동안의 규제와 통제, 지시와 감독을 벗어버리고, 봉사하는 교장으로서의 중심역할을 찾아보아야 한다. 봉사하는 리더십은 교사들에게는 교육의 본질인 수업에 대한 열정을 샘 솟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의 리더십이다.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교육환경도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과거를 답습하게 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장은 학교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건설적인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더불어 교장은 학교에서 혁신의 촉진자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Ⅴ. 나가며

결론적으로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의 질 제고, 학교 쇄신 등은 개별학교의 교육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학교장의 리더십으로 귀착된다. 학교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 없이는 학교 내에 교육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장이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학교 교육력 제고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학교장의 리더십이 학교의 선호 · 기피를 판가름하는 가장 큰 영향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위학교 특교사업 예산집행의 효용성 및 개선방안

글_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센터 연구위원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재정의 약 75%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구성된다. 현행 법령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중 96%는 보통교부금으로, 4%는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다. 보통교부금이 초·중 등교육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총액 배분되는 반면 특별교부금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편성된 재원으로써 국가시책사업(60%), 지역교육현안사업(30%), 재해대책사업(10%)으로만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특별교부금의 규모는 11,37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시책사업에 6,822억원(60%), 지역현안사업에 3,411억원(30%), 재해대책수요에 1,137억원(10%)을 투자하고 있다.

현행법상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은 시·도교육청으로 위임되었으므로 전국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나 국가적으로 장려해야 할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보조금 지원사업을 계획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최준렬, 2009).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때문에 사업추진 전에 예비타당성에 대한 조사나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쉽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국가권익위원회, 2010).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특별교부금에 의한 국가시책사업은 초·중등 교육에 관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국회와 감사원 등의 외부기관에서는 특별교부금 사업의 선정방식, 사업 운영,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및 투명성, 사후성과평가 등의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별교부금 사업들 중에서 단위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에 초점을 두고 시·도별 국가시책사업 운영현황과 교육계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국가시책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1〉 단위학교 국가시책사업의 종류

사업목적	사업명	'10년 예산액 (백만원)	사업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계고
학력증진	일반계 고교육력제고사업 추진	23,400			○	
	2010년 방과후학교 활성화	20,160	○	○	○	○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71,394	○	○	○	○
	사교육없는 학교 지원	60,230	○	○	○	
	IPTV활용교육서비스 지원사업	3,000	○	○	○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25,800	○	○	○	○
소 계		178,184				
고 교 다양화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지원사업	2,500			○	
	국제고 · 외국어고 입학전형위원회 운영 지원	3,500			○	
소 계		6,000				
영어교육 역량강화	영어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	14,020	○	○	○	○
	정부 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사업	790	○			
	원어민실시간원격화상강의 운영	2,400	○	○	○	○
소 계		17,210				
창의인성 교육강화	초 · 중등 창의 · 인성교육	11,350	○	○	○	○
소 계		11,350				
교육복지	농산 · 어촌 전원학교 육성	51,300	○	○		
	농산 · 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14,000	○	○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내실화	31,000	○	○	○	○
	장애학생진로 · 직업교육지원	12,560			○	○
	Wee프로젝트 구축	49,493				
	소외지역 우수과학도서 보급	1,000	○	○	○	
소 계		159,353				
교재,기자재 확충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업	1,508	○	○		
	초 · 중등 과학교육 내실화사업	9,450	○	○	○	
소 계		10,958				
학생건강 및 안전	기숙형고교스포츠활동 활성화	295			○	
	학생 건강증진대책 추진	760	○	○	○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	2,500	○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지원	2,000	○	○	○	○
	선진화된 입학 졸업식 문화정착지원	480	○	○	○	○
소 계		6,035				
진업진로 교육 지원	한국형마이스터고 도입을 위한기반조성	13,200				○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추진지원	16,400				○
	초 · 중 · 고 진로교육 지원	1,100	○	○	○	
소 계		30,700				
학부모 지원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사업	16,032	○	○	○	○
소 계		16,032				
합 계		429,822				

주 : 교과부 내부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Ⅱ. 단위학교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운용현황

1. 단위학교 국가시책사업 유형 및 사업대상 분류

2010년 4월을 기준으로 단위학교를 사업운영 주체로 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의 종류, 사업비 규모, 사업운영 학교급을 정리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의 수는 85개이며 이 중에서 단위학교가 사업추진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수는 29개이다(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2010년 4월 집계현황자료). 사업목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경우, 학력증진분야에 6개 사업, 고교다양화분야에서 2개 사업, 영어교육강화분야에서 3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창의-인성교육분야 1개 사업, 교육복지분야 6개 사업, 교재 및 기자재 확충에 2개 사업, 학생건강 및 안전분야에 5개 사업, 진로직업교육분야에서 3개 사업, 학부모지원분야에 1개 사업이 운영 중이다. 100억 이상이 투자된 대규모 사업들로는 학력향상중점학교(710억), 사교육없는학교(600억), 농산어촌전원학교(513억), Wee프로젝트(490억),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310억), 학습보조인턴교사채용(258억), 일반계고교교육력제고(234억), 2010방과후학교활성화(200억), 고등학교직업교육선진화방안추진지원(164억), 학부모교육참여지원(160억), 농산어촌돌봄학교(140억), 영어교육역량강화지원(140억), 마이스터고기반조성(132억), 초·중등창의-인성교육(114억)이 있다.

2. 단위학교 국가시책사업 운영현황

다음의 〈표 2〉는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수에 대한 빈도분석결과이다.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전국자료를 기준으로 초등학교급의 경우, 시책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2%, 1-2개 실시하는 학교가 34%, 3-4개 실시하는 학교가 46%를 차지한다. 5-6개를 실시하는 학교는 16%, 7개 이상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2.2%에 해당한다. 중학교의 경우 시책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5%, 1-2개 실시하는 학교가 45%, 3-4개 실시하는 학교가 37%, 5-6개 실시하는 학교가 11%, 7개 이상 실시학교가 약 1%에

〈표 2〉 단위학교당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수 분포현황

지역	학교급	기술통계량	0개	1-2개	3-4개	5-6개	7개 이상	전체
전국	초등학교	빈도	121	2,009	2,738	925	130	5,923
		비율	2.04	33.92	46.23	15.62	2.19	100
	중학교	빈도	164	1,431	1,170	352	31	3,148
		비율	5.21	45.46	37.17	11.18	0.98	100
특별시, 광역시	초등학교	빈도	0	393	883	396	65	1,737
		비율	0	22.63	50.83	22.8	3.74	100
	중학교	빈도	0	371	458	176	26	1,031
		비율	0	35.98	44.42	17.07	2.52	100
도지역	초등학교	빈도	121	1,616	1,855	529	65	4,186
		비율	2.89	38.6	44.31	12.64	1.55	100
	중학교	빈도	164	1,060	712	176	5	2,117
		비율	7.75	50.07	33.63	8.31	0.24	100

〈표 3〉 단위학교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비 기술통계량 (단위: 천원)

지역	학교급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총계	초등학교	63,417	63,417	0	1,335,846	5,923
	중학교	34,185	67,433	0	1,334,567	3,148
특별시, 광역시	초등학교	34,890	45,364	88	375,224	1,737
	중학교	39,143	46,004	88	227,348	1,031
도지역	초등학교	34,231	69,562	0	1,335,846	4186
	중학교	31,771	75,596	0	1,334,567	2117

해당하였다.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특별 · 광역시 지역의 학교가 도지역의 학교에 비해 학교당 국가시책사업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 중학교급에서 시지역에 비해 다수의 소규모 학교가 존재하므로 특별교부금 수혜대상 학교로 선정되지 못하는 학교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3〉은 전국 시도별 단위학교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비의 배분현황이다. 전국 자료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1개교당 평균 특별교부금 교부액은 약 3천4백만원이다. 특별교부금 시책사업비가 최고인 학교는 약 13억3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중학교 1개교당 평균 특별교부금도 약 3천4백만원이고 특별교부금을 최대로 받은 학교는 약 13억3천만원을 지원받았다. 특별 · 광역시 지역과 도지역의 사업비 배분현황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지원액의 차이는 약 70만원 정도로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최대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특별 · 광역시 지역의 최대값은 3억7천만원인 반면, 도지역의 최대값은 약 13억3천만원으로 학교간 사업비 격차는 도지역이 시지역에 비해 크다. 또한 도지역은 특별 · 광역시지역에 비해 표준편차값이 약 2천9백만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특별 · 광역시의 교당 평균 사업비는 도지역에 비해 700만원 많은 반면, 최대값은 특별 · 광역시가 2억3천만원인 반면 도지역은 13억3천만원으로 학교간 사업비 격차는 도지역이 훨씬 크다. 표준편

〈표 4〉 교과부 · 시도교육청 · 단위학교에서 제기되는 국가시책사업의 문제점

구 분	문제점
교육과학기술부	○ (교부목적)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교부목적이 포괄적 ○ (집행과정) 예산 편성 · 교부 · 집행 과정에서 통제와 감시의 불충분 ○ (사업평가) 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 · 조정 ·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미비
시도교육청	○ (중복지원) 일부 학교에 대한 중복 지원 ○ (대응투자) 국가가 요구하는 사업종류와 금액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특교 및 대응투자의 부담 가중 ○ (교부시기)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교부 ○ (대상선정) 많은 사업들로 인한 대상 학교선정의 곤란
단위학교	○ (업무가중) 학교현장의 업무 가중 ○ (사업홍보) 교장 · 교사 등 사업담당자들의 사업취지 및 효과적인 집행방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

차값도 도지역이 특별 · 광역시 지역에 비해 2천9백만 원 높게 나타나 도지역의 사업비 배분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Ⅲ. 단위학교 국가시책사업의 문제점

특별교부금은 학생수, 학교수, 교원수 등의 일정 공식에 의해 배분되는 보통교부금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지역의 특별한 사업수요를 수용하여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순기능을 갖는 반면 예산집행의 용이성에 따라 많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최준렬, 2009). 교육계 내부 및 외부기관에서 지적되었던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표4〉, 〈표5〉와 같다.

교육계 내부와 외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공통적인 부분이 많으며 사업수의 과다, 제도운영상에서의 통제시스템의 미비, 중복투자의 문제점, 시도교육청의 대응투자에 대한 부담, 사업수 과다로 인해 대상학교 선정의 문제점 및 유사사업 중복 지원, 학교교육계획과 사업계획 간의 연계성 부족, 단위학교의 업무부담 가중 등을 지적하고 있다.

Ⅳ. 단위학교 국가시책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단위학교 국가시책사업 추진현황과 교육계 내외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업 운용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단위학교 국가시책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 심의를 강화하려면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교과부 부서에서 사업계획수립단계에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업목적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타당한 것인가를 비롯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의 구성, 사업의 세부내용 간 연계성, 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에 대한 정확한 산정 내역, 추진일정, 향후 기대되는 정책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총체적 · 종합적으로 설계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특정사업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적절한 것인가를 심사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현행법상 국가시책사업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시책사업이 충족해야 할 사업의 조건, 내용 등이

〈표 5〉 외부기관에서 제기되는 국가시책사업의 문제점

구 분	주요 지적내용
국회	○ 국고 일반회계 사업에 특별교부금 이중 지원 ○ 연말 교부 또는 연중 분산 교부로 학교교육과정과 비연계 ○ 사업수 과다 및 정책 남발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업무부담 가중 ○ 특별교부금의 집행관리 점검 및 평가 미흡
감사원	○ 국가시책사업수요 특별교부금 과다 ○ 특별교부금제도 운영 관련 통제시스템 미비 ○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부적정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교육현안 수요나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미 시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다시 국가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 동일한 사업에 중복투자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사업들간의 혼선과 중복사업에 대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시책사업과 지역교육현안사업의 범위와 영역에 관한 명료한 구분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업에 대한 심의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부서에서 계획수립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의기구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시책사업 선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책사업심의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나 그 법적근거나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면에서도 총 10여명의 위원들 중 3명만이 대학교수 등의 외부위원이다. 따라서 국가시책사업 선별을 위한 공정하고 신뢰로운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책사업심의회의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외부위원의 수를 충원하는 한편,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

둘째, 2010년 현재 추진 중인 국가시책사업의 수는 총 85개이며 단위학교가 사업운영주체가 된 사업수는 약 30개이다. 단위학교별 국가시책사업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개교당 평균적으로 3~4개의 국가시책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경우, 9개의 국가시책사업을 운영 중이다. 실제 단위학교에서는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뿐만 아니라 보통교부금을 재원으로 한 방과후학교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현안사업들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단위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고려해 볼 때 초·중학교 1개교당 평균적으로 약 7개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위학교에서의 복잡다양한 사업을 무작위로 실시하는 것은 교원들에게 상부기관과 감사기관에 대한 사업보고 및 행정처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가시책사업들 중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국가적 사업 성격이 부족한 사업은 폐지시킴으로써 사업수를 대폭 축소하고 간소화시켜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시책사업운영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에서 국가시책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5% 존재하며 7개 이상 운영하는 학교도 2%에 달했다. 또한 사업비의 배분에 있어서도 학교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부 학교의 경우, '사교육 없는 학교'와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동시에 지정을 받은 경우가 있고 '학력향상중점학교'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모두 추진하는 학교도 있었다. 이처럼 특정학교로 국가시책사업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학교 재정지원사업간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구성하

2010년 현재 추진 중인 국가시책사업의 수는 총 85개이며 단위학교가 사업운영주체가 된 사업수는 약 30개이다. 단위학교별 국가시책사업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개교당 평균적으로 3~4개의 국가시책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경우, 9개의 국가시책사업을 운영 중이다.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사후관리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평가결과 부진한 사업들의 경우, 다음연도 재정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재원을 축소시키는 한편, 성공적인 사업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특별교부금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성공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착근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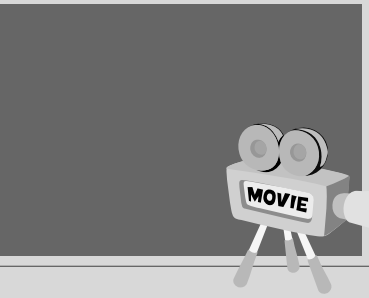
고 그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 교육청 내 ·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조정기구의 운영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추진 대상 학교로서의 적절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대상학교 선정에서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사업기간과 사업비 교부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부시기는 지나친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어 교부금이 연중 수시로 교부되어 단위학교에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시책사업비를 연중 분산 교부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분산되고 상당수의 사업들이 2개 년도에 걸쳐 집행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연말에 교부되는 교부금은 그 해에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단위학교의 교육계획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부된 재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들이 3월 신학기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교부가 적어도 1월말까지는 이루어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시책사업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주기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는 사업의 실시 이후, 학교현장에서의 정책의 안정적 착근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정책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특히 교부된 특별교부금 규모의 적절성 및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시책사업들에 대한 투자금액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 과학적인 평가모형을 설계하여 신뢰로운 평가를 실시하되, 그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사후관리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평가결과 부진한 사업들의 경우, 다음연도 재정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재원을 축소시키는 한편, 성공적인 사업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특별교부금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성공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착근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볼런티어(VIPS)를 통한 학습공동체 만들기
- 청계초등학교 -

글_ 박경숙 청계초등학교 교사

"꿈과 희망이 넘치는 학교" 청계초등학교(교장 최영분)는 43학급, 전교생이 1,375명인 과천에 위치한 대도시형 학교이다. 무엇보다 과천은 평생학습도시로 교육지원이 가장 많고, 지역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잘 형성되어 있다. 학부모들 또한 높은 교육열과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식을 갖고 있어 학부모의 학습참여가 가능한 이점을 갖고 있지만 학교교육에는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과대과밀 학급에다, 중견 여교사가 많아 지역요구와 학교 교육과의 격차가 보였던 곳, 학부모의 요구는 많고, 교사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너무나 힘든 학교 교육의 현실! 청계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청계학교볼런티어(VIPS)로서 나누는 삶과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청계초등학교는 다르다! 기존의 학급임원 아동의 학부모가 중심이 되는 학급 도우미 형태의 학교 볼런티어 활동이 아니다. 자발성에 기초한 학교 볼런티어 활동에 역점을 둔 지역특별강사제도와 청계학교 볼런티어(VIPS, Volunteers In Public Schools : 학교자원봉사자)활동을 통해 학습공동체의 주역으로 서로 배우고 나누는 삶, 교사에겐 힘이 되어주고, 학교 변화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학교 볼런티어(VIPS)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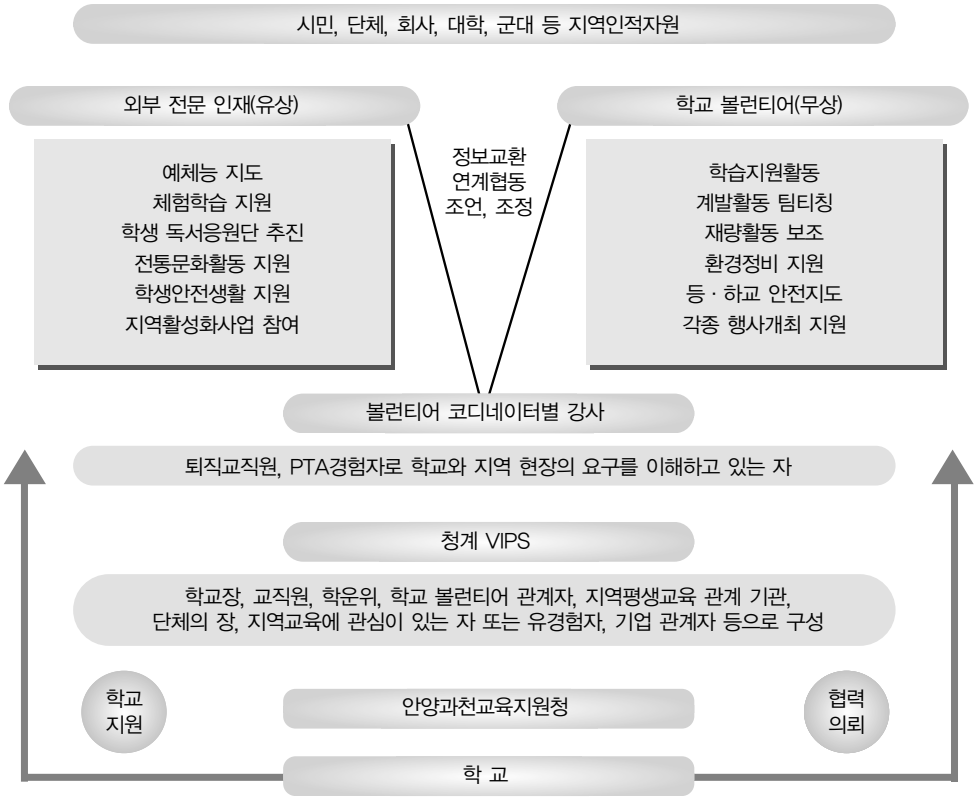
학교 볼런티어란 '자신의 능력과 경험 등을 살려 학교교육활동을 돕고, 새로운 지역사회의 주체로써의 보람을 느끼는 활동' 을 구체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을 포함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를 위해 도움을 주는 지원자로 청계초등학교에서는 청계 학교볼런티어를 청계VIPS라고 일컫는다.

청계초등학교는 2007년 9월 평생교육을 전공한 김득영 교감선생님(현 관문초 교장)이 부임 한 이후 학교 볼런티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순수한 열정에서 시작되었다. 교사들과 함께 지역협동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학교 볼런티어에 대한 정보수집과 연수 및 홍보 등의 준비를 하는 동안 학교 볼런티어 활동이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이제는 청계교육활동의 꽃으로 인식되어 청계초등학교가 볼런티어 학교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에 청계초등학교는 2008년 3월 1일부터 2년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 볼런티어 거점학교와 경기도교육청지정 교육과정 정책연구학교로서 "교육과정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학습공동체의 학습력 향상" 의 연구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청계학교 볼런티어(VIPS)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학교 볼런티어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도시형 교육과정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청계학교 볼런티어(VIPS) 활동은 무언가 다르다!

무엇보다 학교 볼런티어의 성공적인 조직 및 운영을 위해서는 가정 - 마을 - 학교 협동체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그 중 학교볼런티어(VIPS) 단체가 월요일에서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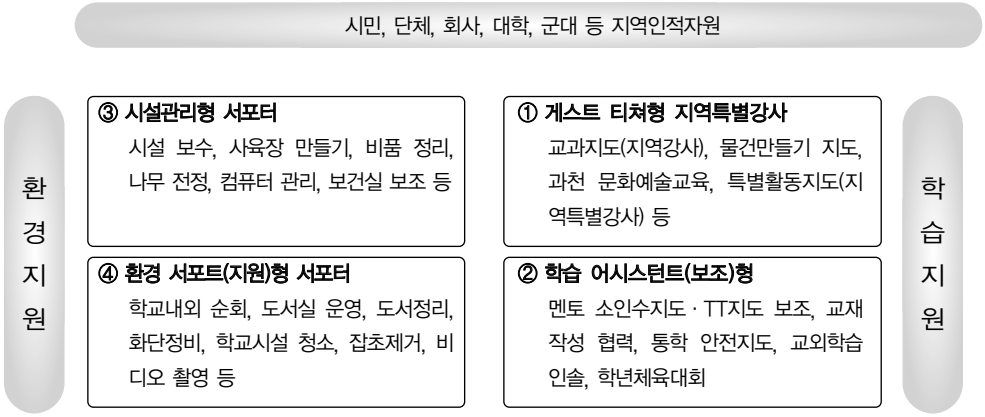


[그림 1] 가정–마을–학교 협동체제

요일(10:00 ~ 12:10)까지 상주하여 패스포트를 착용하고 수업지원과 학습지원 등의 중심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청계초등학교에서는 2008년 200명, 2009년 304명, 2010년 현재 225명이 넘는 학교 볼런티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새로운 학교 볼런티어 활동이 시작되면 기존 학부모 단체들과 벽이 생기기 마련이다. 기존 학부모 단체들과의 위화감 조성 등을 우려해 기존 학부모 단체들과 지역 특별강사들도 학교 볼런티어로 수용하였다. 학교 볼런티어들 중 희망자에 한해 과천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학교 볼런티어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볼런티어 활동 보험에 가입되게 하고 있다. 또한 볼런티어 활동 후 월 1회 결과를 자원봉사센터에 통보하고 포인트화하여 누적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계초등학교에서는 지역특별강사와 협력하여 특별활동(계발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5,6학년 교실에서는 계발활동시간에 2주에 1회 2시간으로 묶어



[그림 2] 학교 볼런티어 4가지 형태

5 - 6교시에 교사와 지역특별강사가 함께 협동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습장소는 4~6학년 교실 및 1, 2학년 교실, 운동장, 관련 유관 기관 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 유관기관으로 나가는 부서는 교사들이 안전지도 등의 문제로 꺼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과 협동한 재량활동 운영, 과천 문화예술 교육센터와 연계한 민요, 탈춤, 풍물, 난타 등 다른 학교에서 쉽게 경험하지 않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부모가 만족하고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학교 볼런티어 활동을 통해 청계초등학교는 지역인적자원과 학부모들을 학교 볼런티어(VIPS: Volunteers in Public Schools 학교자원봉사자)로 유도하였고 지역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에 밀리던 학교가 가정과 지역의

영역	부서	기관 및 단체 영역
인문체험	어학(일본어)	학부모
	지역민주주의 체험	학부모
	어린이경제교실	한국은행경제교실팀
	취미교실(우취반)	우체국 취미교실
사회체험	자원봉사	과천시자원봉사센터
공학체험	전자앨범	방과후학교 교사
예술체험	단소반	한국국악협회(과천)
	기타부	본교 교사(이희경)
	수묵화교실	한국미술협회(과천)

4학년 난타부

5학년 한국무용부

6학년 의회학교부

[그림 3] 지역협동 특별활동 부서 현황

〈표 1〉 과천문화예술교육센터와 협동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명	학년/반/명	교과명	희망 요일 및 시간	희망기간	담당교사	관련 단원
국악동요	1학년 5개반 184명	즐생	화요일5교시	4,5,6,7,9,10월	1학년 부장	즐생 1-1-7, 1-2-2, 1-2-3
탈춤	〃	즐생	화,수,목 (3,4교시)	6월 4주	〃	즐생 1-1-7 장단에맞추어
소고치기	〃	즐생	화,수,목 (3,4교시)	9월 3주	〃	즐생 1-2-3 한가위
향토민요 체험	2학년(7개반) 223명	즐생	목요일 4교시	매주 4월~11월	2학년부장	7. 우리들세상
맞춤형교육 소고	〃	〃	목요일 4교시	매주4월~11월	〃	8.우리나라 좋은나라
풍물체험	〃	〃	목요일 4교시	매주4월~11월	〃	6. 가을 풍경
과천나무꾼 놀이	3학년7개반 246명	재량, 사회, 체육, 음악	화요일 5,6교시	9, 10, 11월	3학년 부장	사회 3-2-2 우리고장의 전통문화

학생교육과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전문가로서 자기연수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 라는 담을 과감히 허물고 지역인적자원과 학부모를 학교 볼런티어로 수용하여 학교변화를 모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진정한 학습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학부모, 학교가 함께 서로 협동하고 열린 마음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 학교 볼런티어 활동은 더욱 큰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인생에 있어서 나누는 삶만큼 행복한 삶이 있을까?

학교 볼런티어(VIPS)들의 활동소감을 들어보자!

추 경 숙 (청계학교 볼런티어(청계VIPS)회장)

그 동안에도 학교에서의 학부모 볼런티어 활동은 계속 있어 왔으나 VIPS활동을 통해서 진심으로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후에도 각 영역에서 볼런티어 활동들이 보다 더 자발적인 마음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함께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 가정으로 보면 아이들이 청계학교에서 6~1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가정만큼이나 학교라는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함께 길러내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볼런티어 활동을 통해 새삼 느낍니다. 좀 더 많은 학교에서 저희와 같은 학부모 활동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혜숙 (청계학교 볼런티어 팀장, 학교운영위원장)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기에 볼런티어 활동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이 마을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내놓은 품들로 인해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아이들 모두의 도우미로서 상처 없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며, 선생님과 아이들 외에 학교를 이루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볼런티어 활동은 의미 있는 교육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지영 (계발활동 지역특별강사)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인격향상의 중요성에 대해 무던히도 주장해 왔지만 이번 청계초등학교의 학교볼런티어 활동에 참여하고 지켜본 사람으로서의 소감은 감동과 존경 그 자체였습니다.

지역특별강사는 자원봉사자의 마음가짐으로 교육에 임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해서 스스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참여하는 것, 그것에 학교는 감사와 전문성 향상 교육, 지역강사들의 느끼는 바에 대한 수용과 빠른 대처가 있을 때 학교 볼런티어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65 연중 돌봄교육활동으로 행복한 농촌학교 만들기

- 신반중학교 -

글_ 노은실 신반중학교 교사

새로운 공교육 모델의 입지 구축

우리 교육은 양질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학교 교육만이 미래 선진국가를 이루어내는 데에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정신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획일적이고 관례적인 학교체제로는 교육의 희망적인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실정을 고려하고 단위학교의 특성을 살려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맞춤형 학교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에 위치한 신반중학교(교장 김동환)는 농촌의 소규모 학교로서 인구감소 폭이 크고 교육 및 문화와 관련한 시설이나 환경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영세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이 많아서 학생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학업에 대한 의지도 매우 낮은 편이다.

그 동안 본교에서는 이런 절박한 지역실정과 학생들의 저학력을 타개하고자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

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교육수요자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도내 최고 수준(18.75점)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고 2009 교육과정 자체평가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0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 참가 학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는 그동안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하는 따뜻한 교육환경 속에서 하루 12교시의 엄청난 학습량도 즐겁게 견뎌내며 모두가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본교에서의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은 학습면, 문화면, 복지면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구조화한「365 연중 돌봄교육활동」을 적용함으로써 농촌학생들이 자기 능력 계발을 통하여 진로를 개척하도록 학교가 미래희망 코치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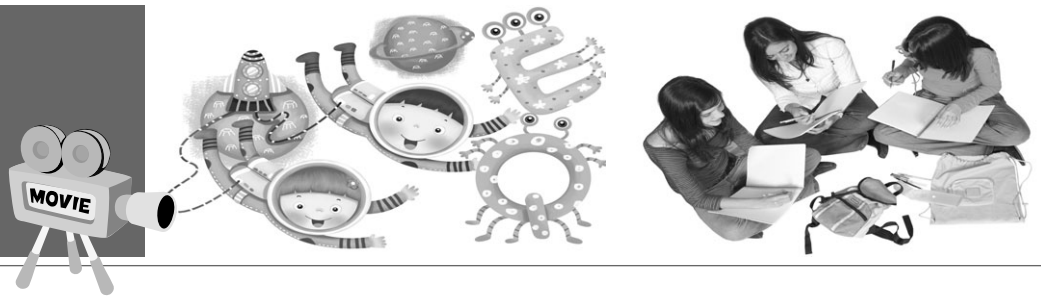
이에 본교는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교육투자에 대한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공교육의 기능을 회복하고, 학교가 지역발전의 기본 인프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제대로 된 농촌학교』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감동으로 배우는 돌봄학교 프로그램

본교의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의 프로그램은 크게 나누어 복지 지원, 학습 지원, 사회성 함양, 심리 · 정서 발달, 문화 체험 등 5개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 · 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떠나는 농촌학교가 아닌 돌아오는 농촌학교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학습지원 영역에서는 지역의 열악한 교육문화적 여건을 고려해 농촌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학습수준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소집단 수준별 보충수업 실시, 야간 공부방 운영, 맞춤형 개별지도 강화, 학습동아리 운영 등이 그것이다. 특히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별 학습동아리 운영, 자기주도적 학습관리 노트를 활용한 성적관리 시스템 구축과 같은 학력증진 프로그램은 그 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학습부진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전문지도뿐만 아니라 3단계 멘토링 시스템 도입 및 맞춤형 개별교재 활용을 통한 1:1 책임지도를 실시함으로써 기초미달학생이 점차적으로 감소(22.7%→8.6%→3.6%)되어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로 거듭나고 있으며, 내신성적의 향상을 보인 학생의 비율도 92%로 크게 증가했다.

복지지원 영역에서는 전교생에게 생활복 및 방한복을 제공하여 생활과 체육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수준의 격차 없이 모두가 따뜻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충치 치료비를 제공함과 동시에 333 양치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산을 가져다 줄 부모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우산을 대여해 줌으로써 갑작스런 우천 시 학생들의 통학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의 성금과 돌봄학교 예산으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자신감을 회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영역별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내용	
복지지원	1. 생활복 및 의료 지원 : 전교생에게 생활복 지원, 해당 학생에게 충치치료비 지원 2. 사랑의 우산 지원 : 갑작스런 우천시 학교가 부모를 대신하여 우산을 지원함으로써 통학의 편의 도모 3. 『꿈키우미』장학사업 전개 : 다양한 격려와 보상을 통한 도전의욕 고취
학습지원	1. 개인별 성적관리 시스템 구축 – 개인차에 대응하는 기초 및 기본 학습지도 강화로 개별학습 수준차 감소 – 자기주도적 학습관리 노트 및 사이버 가정학습관리 노트를 활용하여 내신성적 향상 도모 2. 학습동아리 『비타민』운영 – 1 : 1 맞춤형 개별지도를 통해 학습부진 원인 파악 및 학습방법 개선 지도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습 미달학생의 비율 연차적 감소 (22.7%→8.6%→3.6%) 3. 야간 공부방 운영 – 하루에 3시간씩 주 4일 운영(교과학습, 인터넷강의, 자율학습) 4. Will-class 운영 – 교과 및 특기적성 영역에서 자신의 잠재능력 계발 및 도전의욕 고취 – 교과형 6개(영어, 수학, 과학) – 특기형 8개(독서논술, 한자검정, 건반악기, POP, 생활요가,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5. 창의-인성교육 활동 – 다양한 체험 학습, 과학 심화반 운영, 영재학급 운영, 창의-인성 체험전 등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육성
심리 · 정서 발달	1. 상담교실 :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방문상담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마음 속 소리를 듣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생활 유도 2. 건강교실 : 줄넘기를 통해 기본체력을 기르고 전교생이 배드민턴을 배워 1인 1경기력을 함양함으로써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 유도
사회성 함양	1. 전교생 진로포트폴리오 제작 : 학생의 적성, 소질, 흥미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 실시 2. 텃밭공동체 운영 : 사제동행 텃밭 가꾸기 활동 및 자연사랑 체험학습을 전개하고 직접 가꾼 유기농 채소를 활용하여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며 봉사공동체를 운영하여 반찬서비스(월 2회), 김장서비스(년 1회) 제공 3. 학급별 연극동아리 운영 : 학급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연극공연을 통해 공동체의식 함양 및 표현력 신장
문화체험	1. 의령사랑 체험 : 고정의 인물, 유적지, 자랑거리를 통해 고향에 대한 자긍심 함양 2. 공연예술 체험 : 다양한 공연감상의 기회를 통해 농촌학생들의 예술적 감각 신장 3. 특별활동 체험 : 견학, 야영, 문화탐방 등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및 다양한 문화적 가치관 정립

복하고 학습 및 도전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및 전인교육의 강화를 위해 상담교실(방문 상담, 친구만들기 프로젝트) 및 건강교실(1인 1경기력 함양, 줄넘기 교실, 키짱몸짱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령사랑 체험, 공연예술 체험, 특별활동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율과 창의로 앞서가는 인재양성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전교생 진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텃밭 공동체 운영을 통해 자연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직접 가꾼 유기농 채소로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며 나아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학급별 연극동아리 운영 및 교과형과 특기형을 포함하는 Will-class 운영 등을 통해 자기능력 계발 프로그램에도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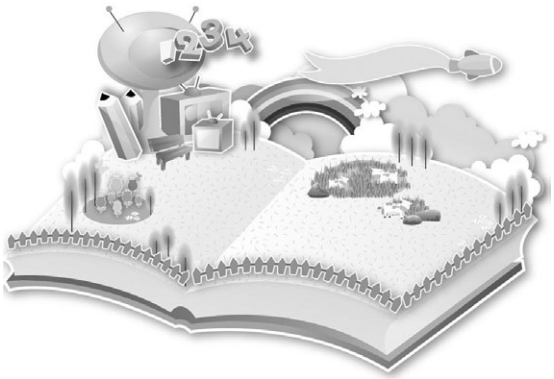
본교는 학교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타 학교의 롤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농촌의 소규모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큰 학교 부럽지 않은 자부심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행복한 웃음이 교정을 가득 메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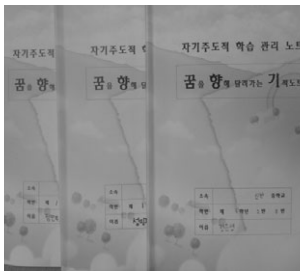
농촌학교의 선두주자로 거듭난 신반중학교

올해로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농촌 소규모 학교의 대들보이자 희망인 신반중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화합을 바탕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경쟁력 있는 농촌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전진하고 있다.

지역의 인적 · 문화적 자원 발굴과 함께 적정한 예산 투입을 통해 '365일 문 여는 학교' 를 구축하며,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으로 가고 싶은 농촌학교, 머무르고 싶은 농촌학교, 자랑하고 싶은 농촌학교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사를 믿고 따르는 선량한 학생, 학생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직한 교사, 투철한 교직관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교육구성원을 신뢰하고 격려하는 학교장은 신반중학교의 오늘이 있게 한 주인공들이며, 모두들 힘을 하나로 모아 긴 시간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인 오늘의 성과를 지속시키며 미래지향적인 학교로 탈바꿈하기 위해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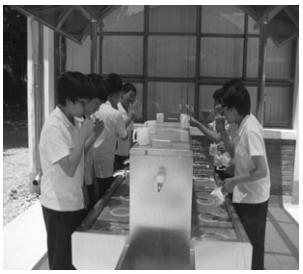

자기주도적 학습관리노트

학습동아리

전교생 진로 포트폴리오

야간 공부방

생활복지원


333 양치 운동

사랑의 우산

장학사업

1인 1경기력 함양

친환경학교 텃밭

봉사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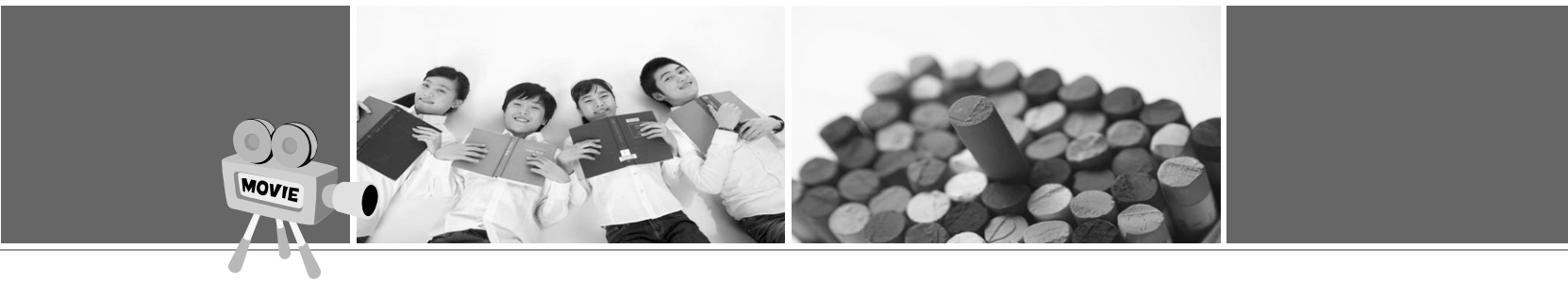
학급별 연극동아리

꿈을 찾고, 꿈을 이루는 행복한 학교
- 안의고등학교 -

글_ 박선미 안의고등학교 교사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에 위치한 안의고등학교(교장 김상권)는 총 6학급의, 전교생이 155명인 아담한 시골고등학교이다.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공부에는 별 흥미가 없었다. 게다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안의고등학교는 도시의 학교처럼 우수하지도, 뛰어나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얻은 답이 바로 '자신만의 능력을 찾아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직업유형별 체험프로그램을 2007년부터 4년간 이어오고 있으며 그 동안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로 선정되어『꿈을 찾고, 꿈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라는 구호로 창의 · 인성교육과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직업유형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매달 1, 3주 토요일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하고 계발



하여 바른 직업관을 심어줌으로써 직업에 대한 선택의 폭이 다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창의성 신장 및 인성 함양은 서로 협력하여 문제해결을 하는 체험활동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신장, 함양되어 꿈을 찾고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자질로 형성되는 것이다.

꿈을 찾아주는 직업유형별 체험 프로그램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특기 · 적성 신장을 통한 창의적 적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적절한 지도체계와 프로그램 개발로 학생 개개인이 소질과 적성을 찾고 이에 적합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안의고등학교에서는 시골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부진한 성적 탓에 잠시나마 꿈을 접은 학생들에게 꿈꾸는 법을 알려주고 보다 현실감 있고 살아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Holland의 여섯가지(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직업성격 유형론에 따라 단계별로 체험활동을 구성하였다.

1학년의 경우, 이론보다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도록 했다. 직업유형별 순환체험활동과 Block-time제를 적용한 교과별 체험활동으로 교과 특성과 단원을 연계하여 월 1회 실험 · 실기활동과 창작활동을 실시했다. 이는 탐구수업, 발표수업, 토론수업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창의성 함양과 진로탐색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순환식 체험활동으로 진로탐색을 마친 1학년 학생들은 Holland의 진로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2,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적성에 맞는 직업유형별 체험반에 속하여 직업세계를 체험하며 진로선택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체험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접체험을 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인근 대학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진로선택을 위한 또 다른 활동으로 심화동아리(그룹사운드, 연극반, 화상영어반) 활동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국 · 영 · 수 심화보충반, 문예독서반, 배구반, 요리반, 워드 · 컴활 자격증 취득반) 활동을 통해 진학할 학과에 대한 진로를 좀더 심도있게 준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는 Holland의 직업유형별 순환체험활동을 한 후 적성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직업유형 동아리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동아리활동의 전문성을 신장시킴과 동시에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 내 교육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가 주체가 되어 방과후 학교와 야간 심화보충반을 함양군장학회의 지원금으로 무료운영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다져오고 있다.

한편 안의고등학교는 인성교육 함양에도 매진하고 있어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예로 칭찬 프로그램과 집단상담 활동을 꼽을 수 있다. 집단상담 활동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탈피하고 마음을 나누는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칭찬 프로그램으로 칭찬을 하는 사람도, 칭찬을 받는 사람도 모두 자존감이 향상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가. 순환식 체험활동 프로그램–1학년 (1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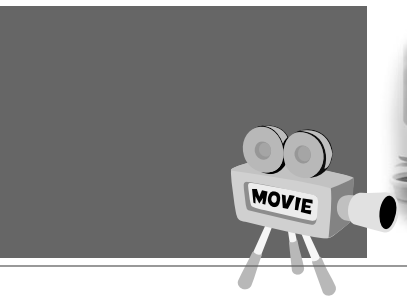
종류 / 순위	직업유형별 순환체험종목					
	실재형체험	탐구형체험	예술형체험	사회형체험	기업형체험	관습형체험
1회	목공예	치약만들기	네일아트	미술치료	의회 체험	공문서 작성
2회	유리공예	전기실험	연극체험	역할극	영상 체험1	정보검색
3회	자동차진단	수학교구체험	폼아트	수화체험	법원체험	파워포인트
4회	전기설비	발명품 제작	디오라마	물리치료체험	영상 체험2	일러스트레이터
5회	퍼즐맞추기	소 눈 해부실험	애니메이션	복지원체험	신문만들기	프로그램 작성

나. 직업유형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1학년(2학기), 2, 3학년

유형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실재형 (R형)	제과 제빵사, 창작목공, 자동차기관 분해・조립, 원예종묘기사, 엔지니어, 체육선수, 군장교	사회형 (S형)	사회복지사, 건강관리사, 바리스타, 피부 관리사, 놀이치료사, 레크레이션 지도강사, 물리치료사, 유치원교사
탐구형 (I형)	한의사, 치과의사, 건축기사, 약초시험연구원, 와인감별사, 생물학자, 수의사, 과학자(과학실험)	기업형 (E형)	정치인, 법조인, 영상제작가, 판매원, 신문기자, 동시통역사, 기업인
예술형 (A형)	연극인, 영화제작, 미술관 큐레이터, 플로리스트, 도예가, 문학가, 무용가	관습형 (C형)	도서관사서, 의무기록사, 은행원, 웹마스터, 컴퓨터기사, 만화채색가, 세무공무원

다. 대학 및 지역단체와 연계 프로그램

지원단체	프로그램	지원단체	프로그램
거창전문대학	자작자동차 제작 및 주행	대구보건대학	바리스타
	응급처치 지도		소물리에
	헤어, 피부, 네일아트	안의체육관	운동선수
	웹마스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연극의 기초, 만화 애니메이션
	전자상거래	이레소망의 집	장애인단체 봉사활동
고임시스템	영상물제작 및 하드웨어 기사	함양도서관	도서관사서 체험
함양군의회	의회체험	함양예술촌	목공예, 유리공예
청소년상담센터	집단상담, 또래상담	그 외 외부강사	그룹사운드, 변호사, 치기공사, 건축설계사, 요리사, 플로리스트, 은행원 등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적성 및 소질 개발을 통해 점차 학력신장을 이루고 한 학년 58명 정원을 가득 채울 정도로 학생들이 다시 찾는 학교가 된 것은 작지만 알찬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서로 믿고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의고! 변화의 중심에 서다!

'좋아하는 것은 있니?', '너의 꿈은 뭐니?' 라는 질문에 늘 한결같이 모르쇠로 답했던 학생들이 변하고 있다.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 들이 생기고 '공부가 자신의 미래가 된 학생' 들도 생겼다. 학생들의 요구로 개설된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야간강좌가 학생들의 열기로 뜨겁다. 결국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던 안의고의 꿈이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안의고 학생들은 이러한 학교 체험 프로그램 덕분에 진로의사결정능력이 배양되어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개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확실한 사전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되었다. 또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체득한 것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개인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학사정관제 등의 입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향후 대학진학에 있어서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택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나의 생애 설계 및 자기 이해, 진로 의사결정, 직업 및 학과정보 탐색활동 등의 진로활동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유형별 체험반에서의 학술활동, 문예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실습노작활동 등 동아리활동을 통해 통합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좀 더 알차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체험참여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어진 현상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것을 창안해 내는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도록 본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적성 및 소질 개발을 통해 점차 학력신장을 이루고 한 학년 58명 정원을 가득 채울 정도로 학생들이 다시 찾는 학교가 된 것은 작지만 알찬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서로 믿고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의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모두는 자신 있게 말한다. "기초 · 기본질서 확립과 공교육 내실화로 학력향상을,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창의 · 인성 · 진로교육의 확립을 통해 전교생 155명이 '꿈을 찾고 꿈을 이루는 행복한 학교' 가 될 것" 이라고...

해외교육 동향

미 국

▶ 던컨 美 연방교육부장관, PISA 결과에 대한 성명발표

OECD의 PISA 프로그램에서 발표한 국가별 2009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대하여 미국 연방교육부장관 던컨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을 통해 던컨 장관은 21세기 세계시장에서의 미국이 경쟁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에 주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계 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미국 아이들보다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이는 것은 이들 국가의 뛰어난 경쟁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던컨장관은 지식경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단행하고 국제적인 경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평균수준의 읽기 및 과학 점수와 평균이하의 수학 점수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교육시스템이 평등한 사회 구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언급하며 교육계의 개혁과 혁신을 강조하였다. 〈미국연방교육부〉

▶ 美 연방교육부, 기술력을 통한 교육향상계획 발표

던컨 연방교육부 장관은 기술력을 통한 미국교육의 변혁을 위한 연방교육부의 계획(National Education Technology Plan)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연방교육부는 미국 전역에 최신식의 학교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던컨 장관은 이 시스템이 교사들에게 최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수업의 질 및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하였다.

'미국교육의 변혁 : 기술력을 통한 학습력 향상' (Transforming American Education: Learning Powered by Technology)이라는 제목의 이번 계획서는 미국 내 권위있는 연구자들이 기업인, 전국의 수천 명의 교사,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18개월이 넘는 시간을 들여 작성한 것이다. 이 계획서는 2015년 달성을 목표로, 5개 영역(학습, 평가, 교수, 기반시설, 생산성)에서 기술력을 통해 총체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연방교육부〉

▶ 온라인 강의정보 공개의 학교 홍보 효과

2001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강의 목록 전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것을 필두로 현재 강의 공개 협력단(Open Course Ware Consortium)에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 250개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의 자료 및 수업 과제물 등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MIT, 스탠퍼드, 하버드 등의 엘리트 대학들이 고부가가치 자산인 강의내용을 무료로 공유하는 이유는 ① 대학과 대학교수들이 본인들이 생산 · 소유하고 있는 지식을 사회와 함께 공유하겠다는 책무의식 ② 선점의 원리에 따라 강의자가 특정 지식을 선점하여 해당 학문분과라는 테두리를 넘어 폭넓게 이름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

다는 점 ③ 강의자료 공개를 통해 대학 및 교육 프로그램 홍보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즈〉

▶ 美 연방교육부, 학부모센터에 대규모 재정지원

미국 연방교육부는 11개 주의 장애아동 부모를 위한 훈련 및 정보 센터(Parent Training and Information, PTI Centers)에 미화 350만불을, 지역학부모정보센터에(Community Parent Resource Centers, CPRCs) 미화 100만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장애가 있는 아동은 그들의 부모가 교육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결정이다.

이에 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아동과 그들의 가족을 돕고 복잡한 특별교육법 및 규칙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특수교육전문가와 협력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훈련을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발달 초기 단계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장애아동의 학업성취를 향상하는 데 힘쓸 것이다.

이로써 연방교육부는 장애아동 부모를 위한 정보센터 106개를 지원하게 되고, 미국 내 모든 주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학부모정보센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아동들이 연방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미국연방교육부〉

영 국

▶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보다는 부모교육 필요

영국 노동당정부의 복지개혁차관이었던 프랭크 필드 의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가구에 자녀양

육보조비를 지원하는 현 복지정책이 저소득 부모에게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크 의원은 양육보조비가 저소득가구의 5세 미만 영아의 생존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보조금 지금이 최선의 정책인가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드 의원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 이는 부모의 직업과 관계되기 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학교입학과 동시에 빈부격차에 따라 아동들의 인생에서의 승부가 이미 결정이 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수당의 데이비드 카메룬 총리는 매우 가치 있는 의견이라고 환영한 반면 노동당측은 의도는 좋으나 이 주장이 복지예산을 삭감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BBC〉

▶ 학생들의 학업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준 도입

영국 교육부는 학생평가를 위한 세 가지 새로운 기준을 소개할 예정이다. '향상준비도(readiness to progress)'라는 이름의 평가기준은 5세부터 11세 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기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영국은 5세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함). 그러나 5세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11세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정교육과정 초등학교 일제고사(Sats)를 대신하여 '읽기, 쓰기, 산수(three Rs: Reading, wRiting, aRithmetic)' 를 평가할 예정이다. 16세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기초평가(basics measure)'라는 평가항목이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학부모들에게는 교사의 자격과 급여수준, 무료급식학생의 수와 특수교육 대상자 수 및 새로운 기준에 의거한 성취도 등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그 교사들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고브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학교의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학업성취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BBC〉

▶ 英 교육부장관, 자유학교(Free School) 설립 승인

영국 교육부 장관 마이클 고브 의원은 11월 5일 부모와 교사들의 요구에 의해 설립되는 '독립공립학교(independent state schools)' 인 자유학교(free school)의 인가 학교 수를 최소한 4곳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9월 일차적으로 허가된 자유학교는 잉글랜드 내에 16개였다. 이중 7곳이 종교계 학교였으며, 기독교 학교 3개과 유태인 학교 2개, 그리고 힌두교와 시크교 계통 학교가 각각 한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교는 입학사정과 교육과정을 학교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공립학교로서 현 정부의 학력수준 향상을 위한 중요정책 중 하나이다. 특히 보수당 고브 장관은 자유학교의 승인이 학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립정부의 소수당인 자유민주당 측은 자유학교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가디언지〉

프랑스

▶ 학생들의 미래 직업, 진로를 위한 3가지 프로젝트

교직 관련 정보기관인 Onisep(Office national d'information sur les enseignements et les professions)이 40주년을 맞이하여 ① 미래-직업, 미래를 향한 길, 학교와 기업, ② 미래 직업을 위한 과학, ③ 진로 결정과 관련한 공동문화 관측소 설립이라는 세 가지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첫째, "미래-직업, 미래를 향한 길, 학교와 기업" 국제경연대회 프로젝트이다. 이는 국내외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경연대회로서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 경영협회와 함께 진행되었다.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기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가 학생들은 기업이 그들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또는 나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문화, 경제, 사회, 지리, 역사 등을 총망라한 블로그나 웹페이지 등을 영어나 불어로 만들게 되어 있다. 선발된 작품들은 2011년 6월 16일 상을 수여하게 되어 있다. 수상을 한 프랑스 학생들에게는 유럽여행 티켓을 (중학생은 리스본, 고등학생은 베를린, 직업학교 학생은 베니스), 외국 학생들에게는 파리 여행 티켓을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미래 직업을 위한 과학 프로젝트이다. 2010년 12월 8일 Onisep.fr에 "미래 직업을 위한 과학" 이라는 제목으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기술, 과학 교육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셋째, 진로 결정과 관련한 공동 문화 관측소 설립 프로젝트이다. 진로 결정 공동문화를 개발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자들은 monorientationenligne.fr 사이트에서 전문가, 교육가, 학생들 사이에서의 대화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을 추릴 예정이다.

〈프랑스 교육부〉

▶ '두 번째 기회' 학교를 통한 새로운 직업창출 기대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을 위한 두 번째 기회의 학교연합(E2C, Le Reseau des ecoles de la seconde chance)은 매년 15만 명에 달하는 학업중도포기 학생들을 재교육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기회' 학교의 선발과정은 서류, 면접 등을 통해 지원자들의 지원동기를 조사하며 진행된다. 그러나 제한된 자리로 인해 지원자 중 많은 학생들이 입학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기회' 학교에서는 주당 35시간씩 이력서 쓰는 법, 면접방법, 그리고 수준에 따라 프랑스어, 수학, 일반문화 수업을 진행한다.

'두 번째 기회' 학교의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사회에 잘 동화되도록 도약대를 마련해 주는 것에 있다. 학생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된 경험을 쌓게 하고, 인턴십을 다양화하여 그러한 과정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까지 연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두 번째 기회' 학교연합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1년 전부터 국가가 재정지원을 결정하였다. 현재 14개 지역에 63개의 '두 번째 기회' 학교가 있다. '두 번째 기회' 학교연합의 목표는 2012년까지 12,000개의 직업을 창출하고 '두 번째 기회' 학교가 지역적으로 균등히 발전하는 것이다. 〈르 몽드지〉

독 일

▶ PISA 2009 결과 발표 : 독일 지속적으로 향상

독일은 전체 15세 청소년들 중 적어도 평균 25%가 이주민가정 학생으로 외국인이 많은 나라이다. PISA 2000에서 평균이하의 저조한 성적과 사회적 배경이 교육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로 평가 받아 이후 개선에 매진하였다. 2009년 PISA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2000년 실시된 PISA이후 지속적으로 성적이 향상되고 교육 불평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연방과 주정부의 현재까지 교육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읽기영역에서 독일은 2000년 PISA 결과와 비교해 읽기성적이 크게 향상된 OECD 7개국 중의 하나이다. 상·하위권 학생간의 격차와, 하위권 학생의 비율(22.6%·18.5%)이 감소하였고, 읽기에 대한 흥미는 증가하였으며 성적은 OECD평균 정도이다.

둘째, 수학영역에서 독일은 2003년에 비해 성적이 크게 향상된 OECD 국가 중 하나로, 하위권 학생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상위권 학생 비율은 증가하였다. 성적은 OECD평균 496보다 높은 513점이다.

셋째, 독일 학생들은 PISA 연구 세 가지 분야 중 자연과학분야의 성적이 가장 뛰어나다. OECD 평균보다 상위권 학생들의 비율은 현저히 높고 하위권 학생들의 비율은 낮은 편으로, 성적은 OECD평균 501보다 높은 520점이다.

넷째,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2009 PISA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년에 비해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 비율이 4% 증가하였고,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실질적 읽기성적이 26점 향상되어 독일인 학생과의 격차가 감소되었다. 읽기 능력에서 터키 이주 가정 자녀들의 능력은 약간, 과거 소련 지역 이주가정 자녀들은 현저히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이주가정 학생들과 독일인 가정 학생들

의 학업능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적 배경과 성취도 측면에서 사회적 배경, 부모직업과 읽기성취도의 연관성은 감소하였다. 김나지움 진학비율의 확대로 부모직업수준이 낮은 가정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개선되고 있다.

여섯째, 학교여건 측면에서, 독일은 학교 운영인력이 OECD 평균 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자원과 교육과정에 관한 학교 결정권은 OECD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엇다. 교육수준 보장을 위한 학력수준 평가는 OECD 평균 보다 적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다. 학교 내 분위기는 개선되었으며 효과적으로 학급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교육부 장관회〉

▶ 통합교육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끝나

독일 베텔스만재단 연구에 의하면 유엔협약에 의해 의무화된 장애 ·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확대정책이 독일 다수의 주에서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과의 공동 수업은 특히 중등학교에서 독일 평균 1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 ·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현황은 유아 · 유치원 60%, 초등학교 34%이며 초등학교 졸업 후 다수의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 프로그램 부족으로 일반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특수학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합교육은 중등학교 경우 슬레스빅-홀스타인 주 40%, 작센-안할트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10% 미만, 초등학교의 경우 브레멘 주 90%, 함부르크 주 13%로 주마다 매우 다르다고 한다.

현재 특수학교 학생 76%가 기초학교(Hauptschule)도 졸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별화된 교육은 학습효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문적 연구에 의하면 통합교육에 의한 공동 수업은 장애 학생만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좋은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사회적 능력을 강화시켜 긍정적이라고 한다. 〈빌둥스클릭〉

▶ 교육개선 시 범죄 감소효과 나타나

■ 베텔스만 재단에서는 교육이 개선(교육 투자 증가)되면 범죄율이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교육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증명한 이 연구는 기초학교(Hauptschule : 우리나라 중학교수준) 중도 포기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범죄가 크게 줄어 들 것이라 함. 기초학교 중도 포기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면 작년 독일에서 일어난 범죄 중 최고 420건의 살인 사건, 135,000건의 강도 사건, 320,000의 절도 사건을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 함

■ 계량 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이 연구는 교육부족이 비행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고함. 학교 중도 포기자 감소를 위한 교육조치들은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 감소 뿐 아니라 범죄에 따른 거대한 비용(연 간 약 14억 2천만 유로, 원화 약 2조 1천 5백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함

■ 베텔스만 재단 요르크 드래거는 통합정책의 개선, 사회소외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특수프로그램 지원(재정지원 증대, 우수한 교사 지원 등), 직업교육 개선 등을 통해 학교 중도 포기자의 수를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교육에 대한 적절한 투자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이어 질 것임

베텔스만 재단(2010.11.11.)

▶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 교육기회 향상을 위한 조기지원 강화 (빌둥스 클릭)

이주의 배경을 가진 아동은 독일 아동에 비해 학교 중도포기 비율이 2배 이상이며 베를린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이주민 아동의 30% 가량이 독일어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방정부는 이러한 이주민 아동의 학교이력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4년간(2011~2014) 조기 언어 교육지원에 400만 유로(원화 약 62억 8천만 원)를 투자하여 약 4000개의 영·유아 탁아시설을 지원하기로 함. 연방 가족부 장관 크리스티나 슈뢰더는 언어가 학교, 직업, 사회 참여와 통합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 가능한 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따라서 특별히 효과가 있는 3세 이하 아동의 언어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함

■ 베를린 교육부 차관 친케는 언어지원은 베를린 어린이 탁아 시설의 공통된 중요과제라 하며 이번 정책으로 언어지원의 질적 개선, 보육수준, 개인적 지원의 향상을 기대함

▶ 국제교육 비교연구를 위한 연방-주 협력연구센터 설립 (10/ 14)

■ PISA 연구는 독일교육의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질적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 PISA 연구의 수행과 국제 교육수준 비교 연구의 발전을 위해 연방과 주정부는 협력하여 국제교육 비교 연구를 위한 연구 센터를 뮌헨에 설립함

■ 퀸네트-틸렌 연방 교육부 차관은 이 연구 센터를 통해 독일의 국제 비교 교육모니터링의 질적 수준과 교육연구의 국제적 의미가 강화 될 것이라 하였으며, 주 교육부 장관회 의장 슈파넬은 이 연구센터가 교육모니터링을 위한 주 교육부 장관회 전체전략의 결정적 초석이 되고, 교육체계의 국내외적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라 함

■ 이 센터(ZIB)는 2011년에 시작하여 2016년까지 PISA 연구와 교육비교 연구를 수행하며 이 연구 분야의 후진 연구자 양성에도 힘쓸 것임. 연구를 위한 재정은 연방과 주에서 공동부담하며, 후진 양성을 위해서는 연방 교육부가 추가 지원하게 됨

주 교육부 장관회(2010.10.14.)

일 본

▶ 문부과학성 전문가회의, 2012년도부터 전국학력테스트에 과학추가

문부과학성의 전문가회의는 2010년 10월 29일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의 학력을 조사하는 전국학력테스트의 과목을 2012년부터 현행 국어와 수학에 과학을 더한 3과목 안으로 제안하였다.

전문가회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에 한하여 사회, 영어 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문제 만들기에 어려움이 많고, 앞으로 과학기술을 짊어질 인재양성의 관점 등에서 과학이 우선되었다. 다만, 시행은 3년에 1번이 타당하며 2013년 이후에는 사회, 영어 순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전원참가에서 30% 추출방식으로 변경된 테스트 방식의 수정 여부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2011년도는 지금과 같이 추출방식으로 2과목을 테스트하기로 결정했다. 〈문부과학성〉

▶ 중앙교육심의회, 교원면허 '기초' '일반' '전문' 3단계 안

문부과학성 대신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 특별

부회는 교원면허에 대해 대학 학부졸업 단계에서 주는 잠정적인 자격 '기초 면허장', 교원채용 후에 대학원 등에서 공부한 자에게 주는 석사 수준의 '일반 면허장', 더 높은 전문성을 익히 자에게 주는 '전문 면허장' 등 3단계로 하는 제도 개혁안을 정리하였다.

이 안을 12월 30일 모임에서 제시하고 특별부회의 논의를 거친 후, 다음 달 중에 문부과학 대신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지금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현행제도에서 교원면허장은 학부를 졸업하면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서 발급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교원면허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혁안은 이를 존중하면서 학생의 경제적 부담, 교원 지망자의 감소에 대한 염려를 배려해 3단계 안으로 제시되었다. 〈요미우리신문〉

▶ 문부과학성, 교원면허 갱신강습 권고

문부과학성은 올해 교원면허갱신 대상자 8만 5,487명 가운데, 갱신강습을 받지 않은 교원이 5,100명(전국 추정치)이라고 발표하고, 강습 미수강자들이 2011년 2월까지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통지하였다.

지난 9월, 문부과학성은 20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적어도 5,100명의 강습 미수강자가 있었으며 그 가운데 2,000명은 수강계획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 2월 실시되는 교원면허갱신 강습은 현재 방송대학 등으로 개강시설이 한정되어 있어 문부과학성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그 지역대학 등이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마이니치신문〉

▶ '취업에 유리' 한 전문학교 인기로 6년 만에 학생 수 증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전문학교 진학률은 물론 4년제 대학 졸업 후 다시 전문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 불황 속에 '취직에 유리' 라는 전문학교의 특색이 주목받고 있다. 개호(介護)복지사나 작업요법사(作業療法士) 등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를 가진 도쿄복지전문학교는 올해 입학자가 지난해 보다 30%가 늘어났다. 문부과학성의 학교 기본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전문학교의 학생 수는 56만 4,7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2.2% 증가, 6년 만에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인기 있는 곳은 교원양성, 개호복지, 공무원지망의 법률행정학과로 지난해 보다 20% 이상 늘었다. 후생노동성 등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전문학교 졸업 취직희망자의 취직률은 87.4%로 4년제 대학의 91.8%에 비해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한다. 〈아사히신문〉

KEDI 동정

'2010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서 전문도서관 분야 최고상인 '국무총리상' 수상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김태완)이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0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에서 전문도서관 분야 589개의 평가 대상 중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최은주 전국도서관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경기대학교 인문대학장)은 "한국교육개발원 도서관은 전문적인 연구정보서비스로 많은 성과를 낸 점을 인정받아 전문도서관 분야 최고상을 받게 됐다." 고 수상이유를 설명했다.

KEDI 도서관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전문도서관으로서, 그동안 각종 국가 지식정보 자원사업 참여를 통해 KEDI 발간물을 웹으로 제공하는 '학술마당' , 소장 교과서의 원문을 제공하는 '사이버교과서박물관' , KEDI 연구 · 사업 결과에 담긴 교육정책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KEDI IDEA Bank' , 전자도서관인 'AskKED' 등을 구축해 기관 자체의 지식자원을 DB화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교육인적자원개발협력, 한국학술정보협의회, LC자료교환프로그램, KERIS 공동목록, UNESCO 'ALADIN' 등 국내외 기관과의 폭 넓고 왕성한 교류 및 협력 활동을 통해 지식자원의 공유 및 활용의 시너지효과를 높여왔으며, 교육현장의 교원과 학부모, 연구자 등 교육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제4회「한국교육종단연구」학술대회 개최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김태완)은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과정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비교교육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와 공동으로 10월 15일(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관련 학회 관계자, 정부 및 교육 유관 기관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 제공한 『한국교육종단연구』는 2005년 전국 150개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동일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습경험, 그리고 인지적 · 비인지적 성취수준을 매년 추적 · 조사하는 종단조사이며, 올해에는 대상 학생들의 고등학교 2년 동안의 학습경험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는 5차년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내용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03년부터 학교교육의 변화 상황과 변화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초 · 중 · 고등학교의 학교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자료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초 · 중 · 고등학교의 교육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수집된 한국교육종단연구와 2003년부터 6년 간 수집된 1~2주기의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 『교육격차』, 『사교육(Ⅰ, Ⅱ)』, 『학교풍토』, 『자기조절 학습능력』, 『학교효과』, 『교사』, 『진로』, 『방과후학교/수준별수업』, 『일반학습심리』, 『학습부진/적응/장애』, 『부모지원과 학습심리』 등 12개 주제에 관해 모두 39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최근 교육분야의 주요 현안 및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담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향후 『한국교육종단연구』 표본 학생들이 만 30세가 되는 시점까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고등학교 및 대학 단계에서 나타나는 고교 평준화 문제, 교육격차, 대학입시, 대학진학, 직업획득, 그리고 사회이동에 대해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 구축할 계획이다.

KICE와 공동으로, 2010 Korea-OECD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김태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원장 김성렬)과 공동으로 10월 22일(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4층)에서 '국제화와 언어능력' 을 주제로 2010 Korea-OECD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금번 국제세미나는 OECD 교육국 산하 교육혁신연구센터(CERI)가 수행한 '국제화와 언어능력(Globalisation and Linguistic Competences)' 의 연구결과를 국내 · 외 외국어 교육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국제적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어교육과 다문화 언어교육 정책을 분석, 진단함으로써 향후 보다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외국어교육정책의 수립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에비에이션 캠프' 운영 등 교육기부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MOU 체결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김태완)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사장 김홍경)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 원장과 김홍경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사장은 10월 12일(화) 경상남도 사천시 KAI 본사 에비에이션 캠프관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과학의 중요성과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살아있는 첨단산업의 현장체험을 통해 미래 국가경쟁력의 기반인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와 함께 전국 600여개 '사교육 없는 학교' 담당자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항공우주분야 체험연수 프로그램인 에비에이션(Aviation : 항공) 캠프를 열고, 교과서의 공식과 원리를 산업현장의 교육리소스와 연계해 교육의 실용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등 교육기부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금번 MOU 체결로 KAI는 KEDI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에비에이션 캠프 운영 등에 필요한 학습리소스를 적극 제공하고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개방하며, KEDI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에비에이션 캠프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

획이다. 이번 MOU 체결은 KAI가 보유한 첨단 항공우주분야의 지식 · 경험 · 공간을 공교육 체험학습마당으로 개방함으로써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KEDI의 교육 네트워크 및 전문인력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금번 MOU 체결로 '사교육 없는 학교' 수학 · 과학 교사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과학적으로 학교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의 지적자산을 교육발전에 기부하는 교육기부운동이 새로운 사회기부문화로 확산,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우즈베키스탄 내각 산하 사회연구소(ISR), 교육분야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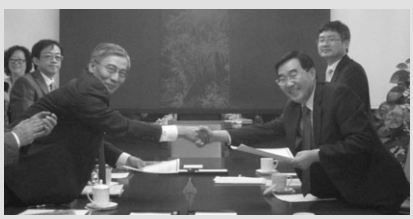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김태완)과 우즈베키스탄 내각 산하 사회연구소(ISR, 소장 털선 아크메오브)가 10월 26일(화) 교육분야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중점사업 발굴 및 공동연구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 학술회의 개최 △연구 성과물 및 사업 노하우 전수를 위한 교환연수 프로그램 운영 △정보 및 자료 교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은 교육 및 인재양성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 어젠다 발굴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연구인력 교류 및 정보 · 자료 교환을 통한 상호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즈베키스탄 내각 산하 사회연구소는 국책연구기관으로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64명의 연구진을 거느린 신설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은 연구기관이다. 사회연구소에서는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구축, △각종 사회통계 조사, △국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대비한 준비, △사회기반시설 강화 연구 등을 하고 있으며, UNICEF, UNFPA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소들과 교육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제4차 ESD 콜로키움 개최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김태완)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UNESCO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전택수)와 공동으로 10월 29일(금) '지속가능 발전교육(ESD)과 교육선진화'라는 주제로 제4차 ESD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제4차 ESD 콜로키움은 유엔이 2005년에 정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DESD)계획에 따라 국내 ·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새로운 교육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내 교육분야별 연구결과를 비교 · 분석하고 진단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지구적, 국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교육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제4차 ESD 콜로키움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 우리 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선진화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콜로키움은 향후 우리 교육이 미래를 발전적으로 구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평화 · 통일교육,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과제, 국제교육협력을 포함한 교육역량의 발휘, 글로벌 시민육성을 위한 시민교육 등 4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미래 교육개혁의 초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중국중앙교육과학연구소(CNIER), 교육분야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김태완)과 중국중앙교육과학연구소(CNIER, 원장 장 리)가 11월 3일(수) 교육분야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국중앙교육과학연구소와 체결한 이번 양해각서는 △중점사업 발굴 및 공동연구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한 세미나 등 학술회의 개최 △연구 성과물 및 사업 노하우 전수를 위한 교환연수 프로그램 운영 △정보 및 자료 교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은 교육 및 인재양성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 어젠다 발굴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연구인력 교류 및 정보 · 자료 교환을 통한 상호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중앙교육과학연구소는 국가 수준의 종합교육연구기관으로, 1957년 교육부 산하에 설립되어 비교교육, 교육정책, 학교교육 및 다문화 가정 정책을 연구해 왔으며 2002년 CNIER 연구진이 본원을 방문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제1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 개최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김태완)은 11월 25일(목)부터 27(토)까지 3일간 제1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Youth: ICY)를 개최했다.
금번 국제학술대회는 국내 · 외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연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의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이 각 자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주체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 연구를 실행한 후, 얻은 결과를 대중을 대상으로 발표토록 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전국 16개 시 · 도교육청이 후원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금번 국제학술대회는 각 학문분야별로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총 105개 팀이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대회 공식언어인 영어로 발표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소장 김미숙)는 이번 학술대회 개최에 앞서, 올 초 세계 각 국의 중 · 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다양한 주제가 담긴 논문제안서(연구계획서)를 제출받아, 각 분야별로 1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 이들 전문가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국내 85개팀, 국외 20개팀으로 총 105개팀의 최종 논문발표팀을 선정하였으며(논문발표 학생 수는 국내 156명, 국외 32명으로 총 188명), 논문발표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본인이 제

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약 4개월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연구논문으로 작성, 금번 학술대회에서 발표 토록 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번 국제 청소년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내년에 더 많은 지구촌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제2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 를 개최해 우리나라 영재 청소년들이 세계의 영재 청소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연구자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적 경험을 갖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시 · 도교육청-교육연구 및 유관기관 간 교육정책협의회 개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 도교육청, 교육연구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정책네트워크(구 ER&D Network)' 는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금)까지 이틀간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김태완) 주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시 · 도교육청-교육연구 및 유관기관 간 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 · 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창의재단 등 교육관련 기관들이 교육문제에 대해 상호 논의, 협력,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협력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16개 시 · 도교육청이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 지역과 기관 간의 소통과 통합의 통로가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청-교육연구 및 유관기관 간 교육정책협의회는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 중 '교육정책 의제발굴 및 현안 대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시 · 도 교육현장이 당면하고 있거나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여 중앙과 지역 간의 정책공조를 모색하며, 이를 토대로 차년도 및 향후 추진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의 의제발굴 및 대안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특히, 지난 9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개 시 · 도를 순회하며 진행된 '교육현장 순회토론회' 를 최종 정리, 결산하는 보고회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현장과 정책을 조응하는,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한 논의와 의제 발굴, 해법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책협의회는 '교원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방안' ,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방안' , '창의 · 인성 ·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입학사정관제도 개선' , '학부모정책, 사교육경감 대책,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 4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어, 차년도 중앙 또는 지역 수준에서 추진할 교육정책의 의제논의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정책네트워크 관련 기관 간의 업무계획 발표가 있었다.

'학교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 주제로 교육포럼 개최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김태완)은 12월 8일(수)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 · 도교육청 관계자,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일선학교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 이라는 주제로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금번 포럼은 학교별 학생 수 규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교육환경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 선진화' 에 관한 연구결과물 발표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교육격차 문제해결과 그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주제로 2010년에 진행된 국가단위의 지표와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내용을 다루었다.

2010년도 교육정책네트워크 협동연구과제 성과보고회 개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 도교육청, 교육연구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정책네트워크(구 ER&D Network)' 는 12월 16일(목)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김태완) 주관으로 2010년도 교육정책네트워크 협동연구과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 · 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관련 기관들이 교육문제에 대해 상호 논의, 협력,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협력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16개 시 · 도교육청이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 지역과 기관 간의 소통과 통합의 통로가 더욱 다양해지고 확대되었다.

한편,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협동연구과제' 는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 중 '교육정책 현장착근 및 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중요 교육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집행 · 추진되어 학교현장에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개별 교육연구 · 개발 성과 공유를 통해 정책 의제발굴 및 성과 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교육 자율화 시대에 맞추어 컨설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시 · 도 및 학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연구 등 다각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 지역의 교육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 성과보고회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 중 5개 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평생교육진흥원)이 추진한 연구 성과를 보고하고 상호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입학사정관제, 2009개정교육과정,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 교육, 전문계고 취업 지원 등의 정책들과 관련하여 수행된 각 연구 성과들이 전국에 고르게 공유 · 확산되고, 실효성 있는 현장 적용 방안들이 모색되는 계기로 마련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홈페이지

KEDI 홈페이지
http://www.kedi.re.kr

영문 홈페이지
http://eng.kedi.re.kr

사이버 출판
http://public.kedi.re.kr

Now KEDI
http://now.kedi.re.kr

열린마당
http://open.kedi.re.kr

교육개발
http://edu.kedi.re.kr

교육정책포럼
http://mailzine.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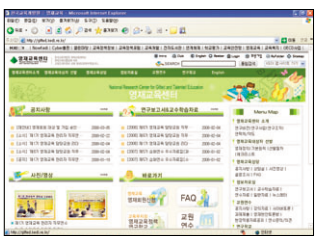
전자도서관
http://askkedi.kedi.re.kr

학교평가
http://eval.kedi.re.kr

교육인적자원 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교육안전망지원센터
http://safe.kedi.re.kr

방송통신고등학교
http://www.cyber.hs.kr



영재교육센터
http://gifted.kedi.re.kr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http://edumac.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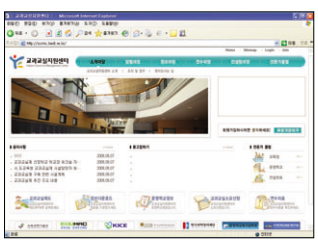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http://eduzone.kedi.re.kr

OECD 교육정보센터
http://oecd.kedi.re.kr

한국교육종단연구
http://kels.kedi.re.kr

교육정책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센터
http://www.schoolup.go.kr



교과교실 지원센터
http://scmc.kedi.re.kr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학교엔 '자율'과 '창의', '다양성'과 '배려'가 살아 숨 쉽니다.
우리 손으로 길러낸 인재들이 세계로 나가고 세계의 인재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꿈을 이루는 교육·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한국교육개발원이 설계합니다.
'선진일류교육' '인재대국' 한국교육개발원이 이루어가겠습니다.

1972년에 설립되어 지난 38년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온 한국교육개발원,
'세계일류교육'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KED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길 220-1 www.kedi.re.kr